

Vol.140 2016 July / August

Special theme

고통도, 흥터도 '최소'를 향하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즐겁고 활기찬 여름 한양대학교의료원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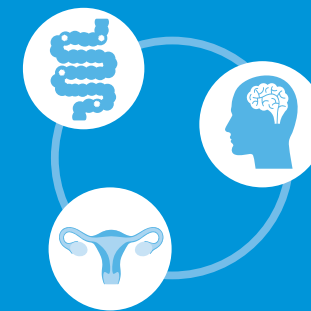
올 여름은 유난히 길고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시작된 이른 더위에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높아진 온도와 습도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문득 걱정이 앞서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짙어지는 녹음과 점점 활기를 더해가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지치지 말고 더 힘찬 하루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름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늘어나는 각종 전염성 질환에 대한 주의입니다. 음식의 부패 속도가 빨라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몸 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염성 질환이더라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 개소식을 가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는 일말의 감염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호 한양토픽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인한 아픔만큼이나 치료 후에 깊게 남아버린 상처 자국이 많은 분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고민한다면, 미래의 의학은 질병 치료 이후의 삶까지도 내다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7+8월 호 스페셜 테마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전되고 있는 '최소침습수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고통과 흉터는 줄이고, 수술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는 최소침습수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와 성과를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환자분들의 질병 치료는 물론, 질병을 겪은 이후의 생활까지도 생각하며 언제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는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즐거운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함께 올 여름도 걱정 없이, 힘차게 맞이하십시오!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③

고통도, 흉터도 '최소'를 향하다

오늘날 의료 기술과 수술의 발전은 비단 질병의 치료 범위를 넓히는 데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자칫 평생 남을 수도 있는 수술 후의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7+8월 호 스페셜 테마에서는 수술 시 고통과 흉터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존의 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최소침습수술에 대해 소개합니다. 수술 이후의 흔적도 걱정 없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의료원이 추구하는 미래의 의학은 질병 치료 이후의 보다 즐거운 삶까지 고민합니다.



02 즐거운 편지 | 즐겁고 활기찬 여름 한양대학교의료원이 함께합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08 Dynamic Hanyang |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마음 걷기대회'

고통도, 흉터도 '최소'를 향하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최소침습수술

14 대장암, 개복 없이 극복한다 | ① 외과

16 여성암, 절제 없이 만족도를 높인다 | ② 산부인과

18 뇌질환, 흉터 없이 완치에 이른다 | ③ 신경외과



20 Hanyang Topic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 개소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뉴스 미디어 속 <가습기살균제 피해>

26 베스트 파트너 |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장인내과

28 Dr. Opera | 리하르트 바그너 4부작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중 제4부

30 Dr. Movie | "맞는 것보다 4등이 더 무서운" 세상

32 예술과 의학의 만남 |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통풍'

34 고마운 당신에게 | 김혁 흉부외과 교수님, 임영호 심장내과 교수님께

36 오늘의 건강강좌 |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37 Hanyang News | '하이브리드 수술 시대'의 개막 외

40 언론 속 한양인

42 발전기금

46 한양캘린더

47 외래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6년 6월 30일 통권 140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는 치유자

김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트라우마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사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크고 작은 사건과 이슈가 계속 발발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 어쩌면 이는 마음에 뚫린 커다란 구멍 혹은 갑자기 찢겨난 상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이 있는 상처는 치유도 가능하다'는 김대호 교수. 앞으로의 이야기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하는 그의 경험이다.

글. 황정은 사진. 김지원

{ 원인 있는 상처는 치유도 가능합니다 }

“우울증의 경우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원인을 알기 힘들어요 때문에 치료도 힘들죠. 하지만 트라우마는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잖아요. 물론 겪지 않으면 좋았을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원인이 정확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원인이 정확한 상처는 치유도 가능해요. 그것도 생각보다 빠른 치유가 가능하죠. 저는 그 과정을 돕는 가이드인 셈이에요. 물론 우리 인생의 운전자는 자기 자신이지만 좋은 가이드가 있으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잖아요?”

국내 트라우마 연구의 권위자로 불리는 김대호 교수가 환한 미소로 취재진을 맞았다. 상담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일까, 말투가 참 온화하고 편안하다고 말하자 “그래서인지 환자분들이 말을 잘 안듣는다”며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풀어나갔다.

김대호 교수는 지난 1997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연구로 외길을 걸어왔다. 당시 국내에는 트라우마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현저히 적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 관련한 치료가 사회적으로 터부시 되면서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도 썩 좋지는 않았다.

“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전공한 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로 논문을 쓰고 환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란 쉽게 말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후유증으로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일종의 불안장애로 생각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분리돼 독립했습니다. 사실 제가 전공을 선택했던 당시만 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건이 계속 발발하면서 보다 깊은 연구와 치료법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 ‘한국형 트라우마’에 대한 고찰 }

김대호 교수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전공의 1년 차로 활동하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로 첫 발을 내밀던 그때 트라우마 환자를 진료했던 경험이 그를 ‘트라우마 치료자’로 살아가게 한 것이다.

“그때 제가 돌봤던 환자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가족 내 성폭력 문제가 정신질환으로 고착된 환자였고, 다른 한 분은 60대 남성으로 월남전 파병용사였어요. 그 분은 상담을 할 때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라도 들리면 책상 아래로 내려가 꿈쭈 숨더라고요. 처음에는 피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였던 거예요. 환자들을 보면서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최근 김대호 교수는 ‘한국형 PTSD’를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트라우마 치료의 표준화 진단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PTSD만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보면 된다.

“환자를 상담할 때 종종 범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환자의 아픈 기억을 계속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상담자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하는 일이지만 사실 환자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거든요. 때문에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해요. 기억해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혹은 진단 항목 중 안 좋은 것에만 체크해 상태가 더 불명확하게 진단되곤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진단 시스템은 환자의 아픈 기억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상태를 분석합니다. 항목도 매우 간단해요. ‘아프다’ ‘두통이 있다’ ‘예민하다’ 등으로만 이뤄져 있죠.”

기존 국제 정신질환선별검사에 사용되는 질문 항목은 약 90개였다. 김대호 교수팀은 이 중 28개만 추출해 보다 짧은 시간에 정확한 진단이



“해결책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책이라 해도 의사가 강요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 자신의 경험, 자원,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모든 치료는 시작돼요.”



가능하도록 했다. 질문 항목이 더 적은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냐고 묻자 김대호 교수는 “질문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기존 진단법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기에 아쉬운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중복된 질문도 있었고요. 저희는 국내 환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도구와 치료방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최근 2년간 치료 중인 환자 104명을 대상으로 이 선별도구를 활용해 측정했어요. 사실 트라우마를 치료하다보면 ‘적응장애’ 혹은 ‘우울증’ 등의 타 질병증상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트라우마만을 정확히 진단해 줍니다.”

{ 겸손하고 위트있는 의사가 되는 길 }

김대호 교수가 의사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그의 아버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 역시 정신과 분야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였으며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을 역임한 정신과 분야의 권위자였던 것이다. 김대호 교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며 “의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심리학 쪽에 관심이 많았고 사람을 알아가는 걸 좋아해 자연스럽게 이쪽 분야로 발을 디딘 것 같다”고 이야기 했다.

“중학교 2학년 때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었어요. 추리소설보다 더 재미있었죠.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는 게 이토록 흥미로운 일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덕분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상담 좀 했죠. 주로 연애심리상담이 전문 분야였지만요.”

20년 이상 환자들을 진료하며 마음 아픈 일도, 안타까운 순간도 많았지만 절로 미소짓게 하는 일도 적진 않다고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청소년기 성폭행을 당해 남자를 기피하는 한 여성이다. 아픈 기억이 그녀를 지배해 밖에도 나가지 못할 정도였는데, 김대호 교수와의 치료가 이어지면서 증상이 부쩍 호전됐다고 했다. 나중에는 소개팅도 나가고 교제도 시작해 사진을 보내왔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보람을 느껴요. 지금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문자가 와요. 그 환자의 경우 단 6회 치료로 증상이 매우 좋아졌어요. 이처럼 단일 트라우마는 짧은 치료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꼭 치료를 권하는 이유기도 하죠.”

많은 정신적 문제의 경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바라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김대호 교수. 그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해결을 어려워 한다”며 “완벽주의 성향이기도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정신적으로는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의미였다.

“해결책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책이라 해도 의사가 강요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자 자신의 경험, 자원,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모든 치료는 시작돼요. 꼭 명심하세요.”

더욱 겸손하고 위트있는 의사로 환자와 마주하고 싶다는 김대호 교수. 치료도 결국은 대화를 통한 것인 만큼, 환자 개개인의 마음을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에게서 환자에 대한 진심이 짙게 묻어난다. ☎



‘더 큰 사랑 실천’으로 향하는 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마음 걷기대회’

흙냄새인 듯 나무냄새인 듯 맑고 따뜻한 자연의 향이 봄날의 나른함을 깨운다. 천천히 걸으며 삶에 열정을 찍는 산책, 개원 44주년 맞은 한양대학교병원의 교직원 ‘한마음 걷기대회’가 4월 30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금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 산책로에 봄꽃까지 환히 등을 밝히니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글. 윤진아 사진. 김지원

개원 44주년 기념 ‘한마음 걷기대회’

간밤에 비가 내리는가 싶더니 발끝으로 전해지는 땅의 감촉이 새털이 불처럼 포근하다. 우려했던 미세먼지가 말끔히 걷히고 더없이 청량해진 공기에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에 모인 교직원들 모두 시작부터 한껏 즐거운 눈치다.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사랑은 한양으로부터’라는 우리 모두의 미션을 더욱 건강한 심신으로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마음 걷기대회 현장.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학교의료원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양대학교병원 이광현 병원장, 이오영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자와 의료직,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 등 전 직종의 교직원 및 가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출발에 앞서 중앙무대로 모인 교직원들이 다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한마음 걷기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광현 병원장은 “지역주민과 항상 함께한다는 병원의 이념을 기초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평소 한양대학교병원이라는 직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하지만, 오늘은 야외에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날이다. 모든 직종의 교직원과 가족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서로 교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느긋하게 걸으며 만끽하는 봄날

시끄럽고 번잡한 바깥세상과 달리 산책로 주변은 한적하기만 하다. 눈 깜짝할 새에 피고 지는 꽃잔치가 아니니 조바심낼 필요도 없다. 살갗이 체육공원 옆 중랑천 연결다리에서 청계천을 거쳐 고산자교, 두물다리를 지나 반환점인 무학교를 돌아오는 7km 남짓의 걷기대회 코스는 평탄한 흙길로 이어져 호젓한 산책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조금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이곳에서 빠른 걸음은 반칙이다. 화창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워 담기도 하고, 푸짐한 경품을 안겨줄 행운권을 반환점에서 ‘득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곳곳에 마련돼 있어 도통 지루할 새가 없다. 가족과 함께 타박타박 흙길을 걸으며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유할 수도 있으니 금상첨화다.

“쉬엄쉬엄 일하라고 때 되면 꽃 피고 열매 맺어 눈을 즐겁게 하는 자연의 순리가 그저 신통방통할 따름”이라는 대외홍보팀 방성주 계장의 너스레에 미소가 고인다. 5년 전 걷기대회 출전 당시만 해도 아빠의 등에 번갈아 업히기 바빴던 쌍둥이 형제는 어느새 훌쩍 자라 아빠를 앞서 걸



“지역주민과 항상 함께한다는 병원의 이념을 기초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준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로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 있었는데, 같은 고지를 향해 땀 흘리는 동료들을 보니 묘한 희열이 느껴졌다”



으며 방성주 계장을 몽클하게 했다. 언제부터 저 자리에서 말 걸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 숲 곳곳의 자연물 친구를 찾아 나서는 쌍둥이 형제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오늘 하루 촬영감 독이자 VJ로 변신한 세훈이는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풀이나 나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관찰해 스마트폰 영상으로 기록 하는 중이다. 세진에게 옛길은 그 자체로 커다란 놀이터다. 주운 도토리에 나뭇가지를 끼워 팽이를 만들어 놀 수도 있고, 풀잎을 떼 어 부는 풀피리도 멋진 놀이감이다. 별다른 정체성이 없던 생명들과 새 친구가 되는 동안 곁에 선 아빠와의 우정도 함께 쌓인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에는 교직원 화합과 교류를 위한 다과회가 진행 됐다. 자전거 10대와 상품권, 체중계, 마스크팩 등 푸짐한 경품도 추 첨을 통해 사이 좋게 나눠 들었다. 수술실 차은영 간호사는 이날 경 품 추첨에 두 번이나 당첨되는 행운으로 모두를 즐겁게 했다. “봄별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지만, 도통 지루할 틈이 없이 펼쳐 지는 이벤트에 피로가 눈 녹듯 풀리네요. 2011년 걷기대회 땀 명환 이와 시윤이 둘만 같이 왔는데, 그사이 막내 유성이가 태어났어요. 다둥이의 대회 출전을 환영하듯 생각지도 못한 경품까지 받게 돼 얼떨떨해요. 이 마스크팩은 조카들과 보폭을 맞춰 걸어준 고마운 수술실 후배들과 나눠 쓰겠습니다.” 새삼스러운 감동과 더불어 다시금 살아 돌아오는 삶에 대한 새로운

기대는 걷기대회가 덩으로 준 선물이란다. 한층 건강해진 심신으로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약속에도 믿음이 간다. 꽃비 흠날리는 꿈결 같은 길을 걸으며 나눈 웃음만큼, 오늘 차은영 간호사는 가슴에 싱그러운 봄기운을 채웠다. 가족, 동료 손잡고 봄을 걷다 자연과 노니는 호사를 누리고 있자니 저절로 몸과 마음에 생기가 돈다. 이날 선발대와 후발대를 오가며 동료들의 얼굴을 익히느라 분주했던 박남주 간호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로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 있었는데, 같은 고지를 향해 땀 흘리는 동료들을 보니 묘한 희열이 느껴졌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기실 병원이라는 일터가 늘 즐겁고 평화로울 수만은 없을 터. 동료 와의 즐거운 산책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또다시 다가올 치열 한 일상을 여유롭게 준비하며 박남주 간호사는 환자에게, 동료에게, 지역주민들에게 더 좋은 동행자가 되어간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발은 땅 위에, 가슴은 하늘에 두고 즐겁게 일하며 의료서비스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노라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들의 의 지는 서서히 구체화될 것이다. 운동화 끈을 다시 견고히 매고 땀과 함께 일상의 묵은 먼지를 날려버리며, 오늘 한양대학교병원 가족들 은 가슴에 높고 푸른 하늘을 담았다.☺

Mini Interview



“쌍둥이와 함께 한 봄 나들이”

대외홍보팀 방성주 계장 & 세훈(11), 세진(11)
어느 방향으로 셔터를 눌러도 봄바람이 만들어내 는 푸른 물결에 한 쪽의 그림이 되더군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어내는 바람의 느낌도 좋고, 바람을 타고 풀잎 사각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들 으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그 모든 기록을 오늘 저녁 쌍둥이가 유튜브에 올릴 계획이 라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음 열고 즐긴 재충전의 시간”

수술실 차은영 간호사 & 명환(10), 시윤(7), 유성(3)
밖으로 나오니 마음이 활짝 열리고 부족했던 대화 를 훨씬 많이 나누게 되네요. 어디로 뭘지 모르는 천방지축 삼남매를 함께 돌봐준 후배들에게 이 자 리를 빌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바쁜 걸음을 멈추고 오늘, 덕분에 뜨겁게 뛰는 심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버거웠던 일상의 무게를 내려놓은 자 리에 새로운 기운이 채워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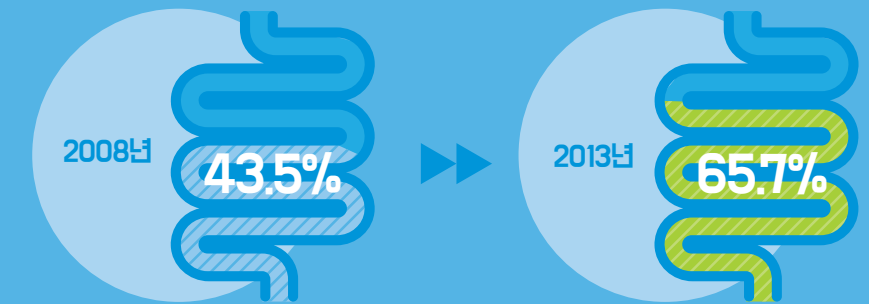


“일상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간호국 박남주 간호사
병원 안에서는 각자의 업무를 챙기느라 늘 긴장하 며 대했던 분들인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어우러 지니 더욱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평소 병 동 곳곳을 오가며 단련해서인지, 코스 완주가 그 리 어렵지 않았어요. 오늘의 산책처럼 걷다가 지치 면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장애물을 제거해나가 며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성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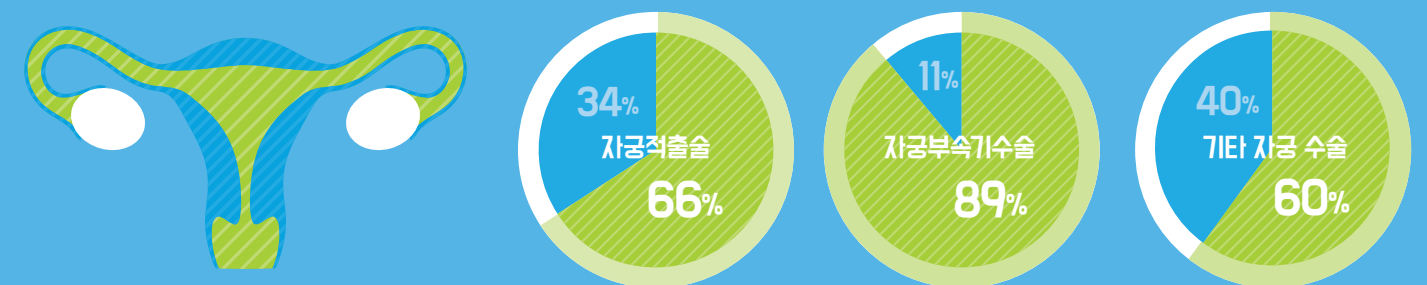
대장암에서 복강경 수술 빈도 변화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4년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중 복강경 수술 빈도

● 복강경수술 ○ 기타



미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술과 코일색전술 비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최소침습수술

대장암, 개복 없이 극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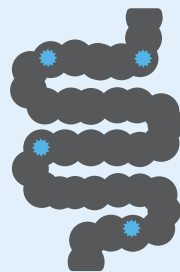
대장암 치료에 도입된 최소침습수술

최근 내시경 검사가 보편화되고 진단기법 및 보조적 치료제의 개발에 힘입어 대장암 환자의 치료 결과는 눈부신 진보가 있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수술법은 놀랍도록 발전했다. 대장암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근치적 절제로 '고식적 개복술'과 '복강경 수술' 방법이 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대장암 수술에서 고식적 개복술이 시행되었는데 이는 배꼽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15~20cm 정도 크게 개복해 수술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술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불필요한 부위나 근육 및 신경 등의 조직에 입히는 손상을 크게 줄이는 방법인 복강경 수술을 도입해 대부분의 대장암 수술을 소화하고 있다.

복강경 수술은 복부에 0.5cm~1.5cm 정도의 작은 구멍(절개창)을 4~5개 뚫어 복강경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고 진행하는 수술

방법으로 창상 크기가 작고 환자에 미치는 생리적 변화가 적어 '최소침습수술(Minimally invasive surgery)'이라고 불린다. 복강경 수술의 창상의 크기는 개복술보다 1/3~1/4 정도로 작아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이 훨씬 적고 조기에 환자가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폐 합병증, 창상 감염의 빈도가 낮고 장운동의 회복 속도가 빨라 조기 퇴원이 가능해지며,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장점이 있다.



COLORECTAL CANCER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에게 발생하는 암 중 대장암은 갑상선암, 위암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남자는 위암 다음으로 2위, 여자는 갑상선암, 유방암에 이어 3위이며, 특히 다른 암의 증가율이 대부분 하락하는 반면 대장암은 그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앞으로 대장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강경 수술의 발전

최초의 복강경 수술은 1987년 프랑스에서 시행된 담낭수술로 알려져 있으며,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 수술은 1991년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복강경 수술은 익히기가 힘들어 수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이로 인한 심장, 폐 등에 합병증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광범위 완전 절제를 필요로 하는 암 수술은 개복술보다 불완전 절제의 가능성이 높고 재발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로 적절하지 못한 치료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복강경 기구가 발전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적극적으로 복강경 수술이 시도되었다. 또한 복강경 수술이 고식적 개복술에 비해 종양학적 결과가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더 좋다는 학문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일부 직장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장암에서 복강

경 수술이 고식적 개복술을 대신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장암의 복강경 수술 빈도는 2008년 43.5%에서 2013년 65.7%로 급증했다. 본원은 2001년 처음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대장암 수술을 시작한 이후 그 빈도가 꾸준히 늘어 2015년에는 전체 대장암 환자의 76.1%를 복강경으로 시행했다. 또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은 10.6%로 국내 다른 대형병원과 비교해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인다.



글. 안병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모든 대장암 수술을 복강경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전히 중부와 하부 직장암의 경우 개복술 보다 복강경 수술의 종양학적 결과가 우월하다는 주장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장폐색이 있는 대장암과 4기 대장암은 광범위한 완전 절제를 위해 개복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복강경 수술의 많은 장점으로 그 적응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앞으로 더 많은 대장암을 복강경 수술로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침습수술의 진화와 미래

최소침습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와 외과의사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Single incision laparoscopic surgery)과 로봇 수술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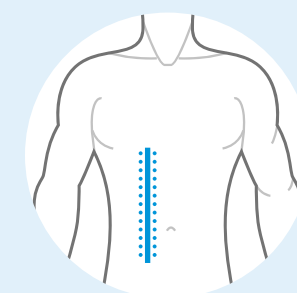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란 기존의 복강경 수술에 사용되는 4~5개의 절개창 대신 하나의 절개창을 이용한 수술법을 말한다. 이 수술법은 기존 복강경 수술보다도 환자의 통증이 적고 미용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는 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진행성 대장암에서 종양학적 결과가 확립되지 않아 모든 수술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로봇 수술은 주로 중부 및 하부 직장암에 적용되는 수술로, 수술법은 복강경 수술과 비슷하나, 기존의 복강경 기구 대신 3차원의 카메라와 로봇팔을 이용한 수술법이다. 이는 복강경 수술의 장점 외에도 골반강 내에서 좀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던 장점이 있으나 진행성 대장암에서의 종양학적 결과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수술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본원에서도 2008년부터 수술의 적응증이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로봇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빈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결국 최소침습수술의 궁극적 목표는 '상처 없는 수술'이다. 과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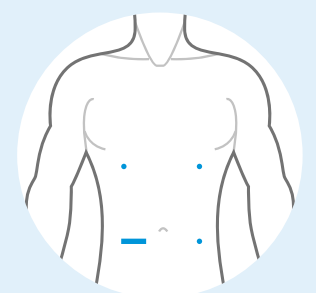
가능할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연개구부 내시경 수술(NOTES, 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일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는 입, 항문, 질 등 자연개구부에 내시경을 넣고 장기에 구멍을 내서 진행하는 수술법이다. 아직은 의료 선진국에서조차 초기 단계이고 수술 장비 및 경험의 축적, 종양학적 결과의 안정성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으나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있다면 향후 복강경 수술을 대체할 신 의학기술로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소침습수술은 많은 장점이 있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좋은 수술법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일부 환자와 보호자 중에는 최신 기법의 수술이 가장 좋은 수술법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암 수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최소침습'이 아니라 '완치'이다. 환자의 병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수술법을 택해 정확하게 수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최소침습수술로 대장암을 극복하는 방법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 후 흉터 비교



개복 수술 후 상처



복강경 수술 후 상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최소침습수술

여성암, 절제 없이 만족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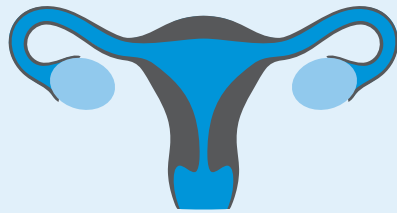
산부인과에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

복강경 수술은 '최소침습수술' 방법의 하나로, 수술 부위를 길게 절개하는 대신 배꼽 주변에 0.5~1.5cm 크기의 투관침(Trocar)을 삽입하여 진행한다. 투관침을 통해 복강 속으로 탄산가스를 넣어 기복을 만들고 수술 공간을 확보한 다음 카메라가 장착된 내시경(복강경)을 집어넣어 복강 내를 보면서 수술 도구로 수술하는 방식이다.

예전의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면 산부인과의 불임수술, 즉 복강경을 통해 난관을 묶는 수술을 떠올리게 된다. 이때 쓰이던 복강경은 단순히 광원과 렌즈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아주 단순한 수술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의 복강경은 컴퓨터칩이 장착되어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선명하면서 확대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또 모니터를 통해 화면을 보면서 특별히 고안된 복강경용

수술 기구들을 사용하면 어떠한 수술도 가능할 정도로 발전되었다. 한국에서는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기 시작해서 난소낭종제거술, 자궁근종절제술, 자궁적출술 등에 사용됐다. 최근에는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등의 각종 여성암으로도 복강경 수술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점차 개복 수술을 대체해가고 있다.

이렇게 복강경 수술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이유는 개복 수술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이다. 복강경 수술은 상처, 출혈, 통증을



WOMAN CANCER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여성암으로는 자궁경부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이 있다. 이런 여성암들은 치료가 쉽지 않을뿐더러, 치료를 하더라도 개복 수술에 따른 큰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여성암 분야에서는 수술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개복 수술 대신 복강경 수술이 선호되는 추세다.

난소암의 경우 수술 후 빠른 시간 내에 항암제를 시작하는 것이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이 빨라 항암제를 쓰기까지의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수술 부위를 모니터로 확대해서 볼 수 있어, 개복 수술에서는 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기도 시야를 확보하며 수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가능하다면 개복 수술보다는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줄이고 입원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장기능의 회복을 빠르게 하며, 수술 후 골반강 유착이 적고, 미용적으로도 효과가 우수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이미 산부인과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개복 수술을 할 경우 10~30cm의 흉터를 남기는데 비해 복강경의 경우 3~4곳에 각각 1cm 내외의 작은 구멍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흉터가 작고 미용적으로 우수하다. 또한 개복 수술의 경우 통증으로 수술 다음날 걷는 것이 쉽지 않지만 복강경의 경우 수술 당일 저녁에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적다.

게다가 개복 수술에 비해 절개 부위가 훨씬 작아 창상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덜하고, 빠른 회복 속도로 입원기간이 짧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과 미래

본원 산부인과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대부분의 수술을 복강경으로 시행하고 있다. 복강경으로 수술을 시행할 경우 개복 수술과 비교하여 평균 출혈량, 평균 입원일, 수술 후 체온, 위장기능회복시간, 배기시간, 수술 후 발열률, 수술 후 통증 정도, 상처회복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심한 비만인 환자, 유착이 심한 경우, 혹이 큰 경우, 병기가 높은 경우 등에서는 복강경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하지만 본원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난이도가 높은 수술들을 복강경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세계 유수의 학회지에 보고하는 등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거대 자궁근종의 경우 복강경 수술 시 기구조작이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투관침의 삽입 위치를 합리적인 곳으로 정하여 성공

적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관한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복강경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난소암에 대한 복강경 수술의 효용성, 자궁경부암에서의 복강경하 근치적 자궁절제술 등의 논문과 제왕절개 후 유착이 심한 여성에서 복강경하 자궁절제술의 안정성 등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복강경으로는 접근이 어렵다고 생각되던 부분들에서도 복강경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복강경 수술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이와 같이 본원의 의료진들은 해외 학회에서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복강경 수술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필자 역시 한국인 최초로 미국부인과내시경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세계 각지에서 많은 강의를 통해 복강경 수술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 환자들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료를 위해 복강경 수술의 범위와 영역 확대에 힘써 나갈 것이다. 

복강경 수술의 장점

- 상처가 작아 미용적으로 우수
- 개복 수술에 비해 짧은 입원 기간
- 수술 후 빠른 회복
- 수술 후 통증 및 감염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이 개복 수술에 비해 적음
- 수술 시 적은 출혈
- 시야확보가 용이, 보다 정밀한 수술 가능
- 빠른 일상생활 복귀



복강경 수술 상담이 필요한 분

- 거대 자궁근종이 있는 분으로 수술 후 임신을 해야 하는 여성
- 비만, 유착, 거대 근종 등을 이유로 개복술을 권고 받은 여성질환(자궁근종, 난소종양 등)
- 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복막암 등의 여성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최소침습수술

뇌질환, 흉터 없이 완치에 이른다

개두술 필요 없는 '뇌혈관조영술'

'뇌혈관내수술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혈관조영술'을 알아야 한다. '혈관조영술'이란 첨단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혈관 검사의 일종이다. 사타구니 혹은 손목의 피부를 작게 절개하여 환자의 혈관(동맥)에 카테터(Catheter)라고 하는 2mm 내외의 가느다란 관을 넣는다. 여기에 조영제라는 방사선 검사 때 조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을 주입하여 엑스선을 통해 우리 몸의 혈관을 보는 검사이다.

뇌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에는 CT를 이용한 혈관조영술(CTA), MR을 이용하는 혈관조영술(MRA) 등 다양한 혈관조영 방법이 있지만, 치료방법을 결정하는 가장 확

실한 진단법은 바로 조영제를 사용하는 혈관조영술(DSA)이다.

'뇌혈관내수술법'은 이러한 '혈관조영술'을 이용하는 수술법이다. 혈관 이상이 있는 뇌 부위까지 카테터가 접근하여 혈관 속에서 각종 기구들을 이용하여 치료한다. 같은 말로 '뇌혈관내치료'라고도 하며, 이미 많은 병원에서 뇌혈관내치료의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것은 뇌혈관 질환의 획기적인 치료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두개골의 개방 없이 보이지 않는 부위의 작은 피부 절개만으로도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침습수술 방법이기 때문이다.



BRAIN DISEASE

의학의 발전은 과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치료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뇌혈관내수술'이 아닐까. 즉,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 말이다.

'뇌혈관내수술'이 가능한 질환

그렇다면 '뇌혈관내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병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뇌동맥류, 급성 뇌경색, 뇌동정맥기형이나 뇌동정맥루와 같은 뇌혈관 기형 질환, 그리고 뇌나 목의 동맥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동맥경화성 협착이 그 대상이 된다.

질병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고 같은 질병이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되지만 뇌혈관내수술은 기본적으로 터진 혈관은 막고, 막힌 혈관은 뚫거나 넓히는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뇌출혈이 생기거나 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뇌동맥류에는 백금코일로 막아 출혈의 위험을 없애는 치료가 진행된다. 반면 혈전이나 색전과 같은 피떡으로 큰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급성

뇌경색에는 약물로 혈전을 녹이거나 풍선 혹은 스텐트를 이용해 피떡을 제거, 피를 다시 통하게 한다.

뇌혈관의 동맥과 정맥 사이에 모세혈관이 없이 직접 연결되는 뇌동정맥기형이나, 뇌혈관의 동맥에서 정맥으로 바로 피가 흘러버리는 뇌동정맥루와 같은 혈관 기형 질환들은 혈관을 막아주는 색전물질과 같은 의료용 아교를 이용하고, 뇌나 목동맥의 동맥경화성 협착은 풍선과 스텐트를 사용해 좁아진 부위를 넓혀준다.

두개골을 개방하는 개두술을 시행해야 하는 뇌종양은 수술 시 많은 출혈이 예상되는데, 뇌수술 전에 뇌혈관내수술로 종양혈관을 의료용 아교로 막으면 수술 시 출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글. 정진환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경동맥 협착증의 '뇌혈관내수술'

뇌로 가는 혈액은 좌, 우의 경동맥 및 추골동맥 등 크게 4개의 동맥을 통해 공급된다. 이 중 경동맥에 동맥경화증과 석회화 현상이 잘 발생한다. 이러한 경동맥 협착증 역시 뇌혈관내수술을 통해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경동맥 협착증은 마치 오래된 파이프에 찌꺼기가 끼여 지저분하고 좁아지는 것처럼, 경동맥 부위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칼슘 등이 침착되면서 발생한다. 이것은 뇌경색이나 반복적인 일시적 시력소실,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의 마비, 언어장애 등의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시적인 뇌혈류 부전으로 발생했다가 다시 증상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신경증상을 일으키게 한다. 경동맥 협착증은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분리되는 지점에서 잘생기며, 뇌경색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치료가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치료방법으로 약물 요법, 경동맥내막 절제술 및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있다. 이 중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뇌혈관내수술에

속하는 것으로, 국소 마취 하에 환자와 대화하면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술은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부위에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펼쳐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뇌수술의 미래

하지만 '뇌혈관내수술'로 모든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다. 뇌가 많이 부어 오르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에서는 머리를 여는 수술인 개두술이 필수적이다. 지금도 시술 장비와 기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진 역시 훈련을 거듭하고 있으며, 본원 역시 뇌혈관내수술 인증의를 비롯한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다양한 연구와 함께 수술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충분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한 뒤 집중치료가 뒤따른다면 뇌혈관 질환에서 합병증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뇌혈관 질환의 예방법



뇌혈관 질환은 항상 예고치 않고 발생한다. 그러므로 평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40대 이전이라도 CT나 MRI를 이용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뇌혈관 질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연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꾸준한 운동 역시 뇌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 요건이다.

뇌혈관내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뇌혈관내수술로 모든 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수는 없다. 수술 전에 혈관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통해 뇌혈관내수술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시술 전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뇌혈관전문 신경외과 전문의와 상의한 뒤 진행해야 한다.



응급의료 ‘최전방’에서 ‘안심’을 외치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 개소

작년 메르스 사태를 거뜰히 이겨내며 지역 내 확산을 막는데 성공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본격적인 ‘감염병 안심’ 공간 만들기에 나섰다. 감염병 환자의 철저한 출입 관리와 격리병실 사용으로 병원 내 추가 감염의 우려를 애초에 차단한 것. 지난 5월 11일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마치고 지역 의료의 중심에서 한발 더 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의 변신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글 박여민 사진 이승현

170번 메르스 환자의 방문

2015년 여름, 때 아닌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의 공포가 전국을 휩쓸었다. 사람들은 메르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꺼렸고,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루던 동네 공원과 사내, 휴가철 공항에는 유례없는 한산한 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메르스의 전파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전할 것 같았던 병원, 그 중에서도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통해 번졌다. 직접적으로 환자와 마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 같은 병실을 사용했던 환자 와 환자의 보호자 등이 2차, 3차 감염자가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 응급의료센터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외국의 응급의료센터는 전부 1인 1실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응급실 상황은 그렇지 못하죠. 심지어 환자의 보호자나 병문안으로 온 사람들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감염병의 가능성이 있는 응급 환자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는 곳이 병원의 응급실이니 더 철저할 필요가 있죠. 메르스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 제일 먼저 임시 격리공간을 만들었고, 입구에서는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재며 문진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구리와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입니다. 특히나 응급의료센터는 병원 내에서도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감염병을 비롯해 지역에서 가장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의 환자분들이 오시죠.”

응급의료센터 최혁중 교수는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감염된 170번째 메르스 환자가 구리의 재활병원과 내과의를 거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것. 환자는 응급실 입구의 접수실에서 미리 이상을 눈치챈 최 교수에 의해 이미 마련해두었던 선별진료소로 옮겨졌고, 다른 환자 및 일반인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거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접수실에서만 머무른 약 12분의 시간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삼일간 폐쇄를 결정하고 전 응급실의 소독을 진행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병원이었지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추가 감염 환자 한 명 없이 메르스 한파를 이겨낼 수 있었다.

‘감염병 안심’ 공간으로 재탄생

메르스 이후 감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응급실 내 시설과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정부는 관련 정책과 함께

‘안심 응급의료센터’ 구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고, 누구보다도 감염 관리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그 중요성을 외쳤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가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 만들기에 앞장섰다.

지난 5월 11일 개소식을 마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신설된 격리병상을 꼽을 수 있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이 1인 병실은 2중으로 설치된 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공기 압력의 차이를 통해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음압 격리병실 외에도 일반 격리병실 2실을 추가로 설치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감염병 안심 센터의 기준인 격리병실 1실보다 많은 병실을 확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며 언제 찾아올 지 모르는 감염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구에서부터 응급실 출입이 까다로워졌다. 인체의 발열을 감지하는 스캐너(Thermo scanner)를 설치해 응급실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발열을 수시로 확인하며, 응급실 출입 전 입구에서 문진을 거쳐야 한다. 특히 고열 증상은 메르스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의 대표적인 징후이기 때문에, 일단 발열이 감지되면 부자가 올리면서 의료진의 판단이 끝날 때까지 응급실 문이 열리지 않도록 했다.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별도로 마련된 통로를 이용해 바로 격리병실로 이동하는 등 입구 및 통로 관리에서부터 철저히 하여 응급실 내 감염의 위험을 원천봉쇄 한다.

지역의 응급의료의 중심축 담당

1994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과 함께 문을 연 응급의료센터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2003년 연간 2만 명에 달하던 응급 환자는 이제 4만 명 가까이로 늘어났으며, 특히 ‘감염병 안심’ 센터로 재 오픈한 이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우리 병원은 구리와 남양주를 포함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입니다. 특히나 응급의료센터는 병원 내에서도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감염병을 비롯해 지역에서 가장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의 환자분들이 오시죠. 특히 이 지역은 여전히 인구의 증가가 일어나는 곳으로 노령인구도 많고, 그만큼 중증도 질환자도 많아요, 우리가 소화를 못하면 그땐 서울로 가야 하니까, 늘 이곳이 마지막 관문이자 보루라는 생각으로 모든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안심’ 시설의 설치의 이제서야 응급실의 기본을 갖춘 것뿐이라며, 응급의료센터의 수장인 최혁중 교수는 곧바로 더 높은 비전을 그리고 있다.

늘어가는 응급 환자를 위해 의료진을 확대하고 서비스 면에서도 만족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진행 중인 구리병원 신관의 신축이 마무리되면 응급실 공간의 확장도 이뤄질 것이다.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중심이라는 역할과 책임감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불을 밝히고 오늘도 바쁘게 움직인다. 🏥

Mini Interview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를 위하는 응급의료센터

최혁중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학과



건강하고 안전한 응급실을 위해서는 우선 출입에서부터 엄격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께서 까다로워진 응급실 입장 절차에 불편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메르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무엇보다도 환자분을 위한 신속한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시설도, 의료의 질과 서비스도, 나아가 규모를 늘리는 계획과 같은 모든 것의 중심에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조금 더 불편하게 느끼시더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며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폐손상

2011년, 미디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파동이 불거졌다. 지금까지 산모와 어린이 등 한창 건강할 나이의 우리 이웃들 14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폐손상으로 고통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연일 뉴스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다. 글. 백미희

최근 검찰은 산모와 영유아 등 많은 신체적 약자들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행하고, 제조사와 유통사를 소환 조사하려 하고 있다. 2011년 봄, 임산부들이 잇따라 원인미상 급성 호흡부전을 호소했고, 입원한 환자들은 연쇄적으로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조사결과 영유아 및 산모가 같은 양상으로 다치거나 죽음에 이른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었으며, 2002년 당시 5세였던 김 모양이 최초의 사망자로 알려졌다.

2011년 여름,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2011년 말, 가습기살균제는 전 제품이 수거되었다. 2012년 초,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가 급성 폐손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최종 확인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성분들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다닌),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등이다.

이같은 가습기살균제 성분들이 고농도, 고분자물질로 폐에 들어오게 되면 처음엔 가벼운 감기와 폐렴 증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후에는 간질성 폐렴으로 발전하여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폐섬유화는 호흡곤란 및 고착성 폐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현상으로, 폐를 이식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약 53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4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피해자 가



족들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사망자만 220명이 넘는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폐질환으로 죽거나 크게 다친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확인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해 기업들에 약간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직접 형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검찰은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시한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족들은 재수사를 요구했고, 마침내 작년 압수수색이 이뤄져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긴 시간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나마도 당사자인 피해자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요구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었다. 2011년에 이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9년 신종플루 유행 이후 호흡기 건강관리에 관심이 늘면서 가습기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시판 이후 유해성이 알려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자가 원인도 모르는 급성 폐질환으로 사망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한 동물실험에서 나타난 태아사망이 사람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 소량을 사용하여 지금 당장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세월이 흐른 뒤 폐를 포함한 다른 장기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역시 모른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 가족이 보상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후유증 남기고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손장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증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흡기 증상은 급격한 폐손상에 따른 호흡부전입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기침이 심하게 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 양측 폐 전체에 광범위한 염증 소견과 극심한 저산소증을 보이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로 버티면서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치료는 어떻게?

치료는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에 의한 폐손상이니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인공호흡기로 저산소증을 교정하면서 대증치료*를 합니다. 요즘은 심한 폐손상 환자에게 환자의 심폐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부착하여 환자의 순환기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외막 산소화장치(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치료를 많이 하는데 2011년 당시만 하더라도 ECMO 치료가 보편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행히 염증이 가라앉는다 하여도 심한 후유증(폐섬유화)이 남으면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고 폐 이식을 해야 합니다.

* 대증치료

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접적 치료법과는 달리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신청 일문일답

Q1. 지금까지 몇 명의 피해자들이 확인되었나요?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되는 총 53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검사와 전문가들의 판정을 거쳐 인과관계가 높은 221명에 대하여 우선 그 피해를 인정하였습니다.

Q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조사와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서울아산병원 외에 대형병원들을 추가로 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내년 말까지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해드립니다.

Q3. 폐질환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건강모니터링 결과 분석과 추가 연구를 거쳐 폐 이외의 장기, 비염, 천식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피해를 인정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Q4. CMIT/MIT 제품을 사용한 사람도 가습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CMIT/MIT 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조사, 판정하고 있으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례로 지금까지 CMIT/MIT 제품만 사용한 피해자 3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Q5.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폐질환 인정신청서와 진료기록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575, relief@keiti.re.kr)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사이트(www.keiti.re.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참고 사이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 www.cdc.go.kr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http://eco-health.org>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장인내과

장인(匠人)정신을 담은 장인(腸人)의 자신감

장인내과의 이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내과질환 중에서도 소화기, 즉 장(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화기내과 전문의라는 것과, 자기가 하는 일에 전념하며 그 일에 정통하는 '장인(匠人)' 정신으로 진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글. 박여민 사진. 김재이

장인 정신으로 진료에 집중하다

장인내과에 오면 환자들은 두 번 놀란다. '장인'이라는 이름이 풍기는 고전적이고 연륜이 느껴지는 이미지와는 다른 젊은 원장의 모습을 보고 한 번, 그리고 유난히 깔끔한 병원 내부와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국가검진과 종합검진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최신식 장비들에 또 한 번.

"다른 것보다도 장비에 많은 신경을 썼어요. 개원병원에서는 많이 구비하지 않는 고가의 최신 기종 장비를 들여와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내과는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심각한 합병증까지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진료하는 '토탈케어'이므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2014년 개원한 장인내과는 대형병원에서 소화기 내시경을 비롯해 다양한 술기를 쌓은 김주형 원장이 이끌어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내원할 수 있는 동네 의원이지만, 대학병원 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일념으로 시설과 장비에 많은 투자를 했다. 건강검진에 필요한 X-ray와 초음파는 물론 위·대장 내시경과 용종절제술이 가능한 내시경 장비, 골밀도 측정기 등을 골고루 갖추어 국민건강공단 건강검진 및 5대 암 검진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내시경을 비롯한 건강검진은 오늘날 필수 사항입니다. 유방암이나 위암, 대장암은 발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스트레스 등으로 소화기관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20, 30대도 많아요. 모두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내시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김 원장이지만, 당장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억지로 권하진 않는다고 기기가 직접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일이기엔 무엇보다도 환자 스스로 마음을 먹고 병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병원의 청결에도 더 신경을 쓰고, 진심을 다해 대하다 보니 내시경을 위해서 오는 환자는 물론, 언제부턴가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웃으며 나가는 환자도 늘었다.

질 높은 의료를 향한 든든한 지원군

어느 날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장인내과를 찾았다. 환자는 내시경을 원했지만 김 원장의 판단은 달랐다. 복통은 심상치 않았고, 재빨리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의뢰를 했다.

환자는 대동맥이 파열된 '대동맥 박리'라는 응급 진단을 받았고, 일 분 일 초가 위급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김 원장의 빠른 판단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는 큰 수술을 마치고 다시 장인내과에 돌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남은 회복 과정을 김 원장과 함께 진행해 나갔다.

"환자를 보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상태와 경과를 알려주고, 또 중증 진료가 마무리되면 다시 우리 병원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하죠. 한양대학교병원은 개원 후 자연스럽게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큰 병원으로 의뢰서를 써 드리기 전 환자분들에게 먼저 원하시는 병원을 묻곤 하는데, 한양대학교병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지역 분들에게 한양대학교병원은 큰 의미가 있어요. 오랜



장인내과

-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315 5층(행당동 한동타워)
- 문의 : 02-2295-4005

시간 지역의 중심 병원으로 있으며 주민들과도 끈끈한 관계를 맺어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상부 위장관과 치료내시경을 전문으로 하는 이향락 소화기내과 교수는 김 원장이 주저없이 의뢰를 보내는 교수다. 위암, 대장암 등 몇 번의 아찔한 상태의 환자를 보냈으나 한번도 문제가 생긴 적 없었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그를 찾아와 만족을 표시했다.

규모의 경쟁보다는 진심과 노력하는 마음이 담긴 '장인'정신을 더 추구한다는 김주형 원장은 그런 면에서 한양대학교병원과 장인내과의 공통점을 꼽는다. 그가 추구하는 한 명 한 명을 위한 질 높은 의료에 한양대학교병원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다는 것. 한치의 망설임 없이, 환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적 진료만을 생각하는 장인내과에서 의료 장인(匠人)의 풍모가 느껴진다.☎

거짓과 저주의 종말,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황금

리하르트 바그너 4부작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중 제4부 〈신들의 황혼〉

Wilhelm Richard Wagner <Goetterdaemmerung> from <The ring of the Nibelung>

12년간의 정치적 추방에서 해제된 후 바그너는 바이에른의 젊은 국왕 루트비히 2세와 만나면서 그의 화려한 후반기 음악인생을 펼치게 된다. 1854년 불과 18세 나이에 바이에른 왕위에 오른 루트비히 2세는 어린 시절부터 바그너 오페라의 열렬한 숭배자였으며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를 바이에른 수도의 뮌헨으로 초대한다. 국왕의 전폭적 지지하에 그는 바이에른 왕립 극장에서 망명 시절 완성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상연하며 큰 성공을 거둔다. 당시 일생 최대 스캔들인 리스트의 딸이자 지휘자 한스 폰 뷔로의 부인인 코지마와의 불륜 행각으로 비난을 받지만 국왕에게 보호를 받으며 1870년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그 후 마지막 예술적 영혼을 불사를 바이로이트 극장을 국왕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1876년 건립하게 되고 그해 8월 《니벨룽겐의 반지》 4부작을 초연하면서 개관하게 된다. 그 후 바이로이트 극장은 지금까지 바그너 오페라만을 연주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제1서막 세 명의 노른 운명의 여신 노른들이 운명의 실을 돌리며 과거, 현재와 미래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 노른은 보탄이 지혜의 샘에서 지혜와 자기 눈을 바꾼 사실, 우주나무의 가지를 꺾어 창을 만들어 우주나무는 시들었다고 한탄한다. 두 번째 노른은 지그프리트에 의해 보탄의 창마저 산산조각이 난 후 죽은 물푸레나무를 잘라 발할라 주변에 쌓았다고 노래한다. 세 번째 노른은 로케에 의해 발할라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노른들이 알베리히의 저주에 대해 말하자 운명의 실이 끊어지고 노른들은 황급히 그들의 어머니 에르다에게 돌아간다.

제2서막 브륄힐데의 바위산 지그프리트와 브륄힐데가 서있는 발퀴레 바위에 여명이 뜬다. 지그프리트는 원정을 떠나려고 한다. 브륄힐데는 그에게 자기의 애마 그레인을 주고, 지그프리트는 정절의 표시로 반지를 주며 뜨거운 이별 후 지그프리트의 라인강 원정이 시작된다.

제1막 제1장 기비히성의 넓은 홀 기비히의 성주 군터는 이복동생 하겐(그의 아버지는 알베리히)에게 부와 명예에 대해 묻는다. 하겐은 군터에게 브륄힐데와 결혼을 권하며 이런

용기를 가진 자는 지그프리트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그륄힐데가 구트루네에게 준 기억을 잃게 하는 마법의 약을 상기시킨다. 그때 지그프리트가 나타나고, 반지의 행방을 묻는 하겐에게 자신이 주인이며 브륄힐데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구트루네는 지그프리트를 환영하며 약이 들어있는 촉배를 마시게 한다. 기억이 희미해진 지그프리트는 구트루네와의 결혼을 원하게 되고, 구트루네와의 결혼을 위해 자신이 타른헬름의 마력을 동원하여 군터로 변신한 다음, 브륄힐데를 얻어 오겠다고 군터와 함께 의형제를 맺고 떠난다. **제2장 브륄힐데의 바위산** 발퀴레 자매 발트라우테가 찾아와 보탄의 창이 산산조각이 나고 브륄힐데가 반지를 라인강의 처녀들에게 돌려줘야 신들의 세상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난다고 한다. 브륄힐데는 이 반지는 지그프리트의 것이라고 그 요청을 거부하고, 발트라우테는 신들의 끔찍한 운명을 예언한 뒤 떠난다. 얼마 후 군터의 모습을 한 지그프리트가 나타나 브륄힐데에게 군터의 아내가 되었다며 그녀의 손에서 반지를 빼앗고 둘이 같이 밤을 지새우게 된다.

제2막 제1장 라인강가 기비히 성 하겐의 꿈속에 그의 아버지 알베리히가 나타나 반지를 되찾고 브륄힐데가 라인강의 처녀들에게 반지를 돌려주지 못하게 하라고 명한다. 새벽이 밝아오자 지그프리트는 구트루네를 찾아 간밤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이제 자기와 결혼할 수 있다고 전한다. 하겐은 군터에게 브륄힐데를 아내로 맞아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브륄힐데는 지그프리트 손의 반지를 보고 그녀에게서 반지를 가져간 사람이 지그프리트였다고 배신에 대한 복수를 다짐한다. 지그프리트가 구트루네와 같이 피로연장으로 들어가자 브륄힐데는 지그프리트의 몸을 모든 무기로부터 보호하는 마법을 걸었지만 그의 등은 보호하지 않았다고 하겐에게 알려준다. 브륄힐데, 하겐, 군터는 함께 다음날 사냥터에서 지그프리트를 죽이기로 결정한다.

제3막 제1장 라인강가의 계곡 라인의 처녀들은 지그프리트의 반지를 보고 돌려달라면서 그의 죽음에 대해 경고한다. 지그프리트는 하겐과 군터를 만나 그동안의 모든 기억을 되찾고, 하겐은 ‘복수’라고 외치며 지그프리트의 등을 찌른다. 지그프리트는 브륄힐데를 부르며 죽는다. **제2장 라인강가 기비히 성** 장송행진곡과 함께 지그프리트의 시신이 성안으로 들어온다. 하겐이 구트루네에게 지그프리트가 멧돼지의 공격을 받았다고 거짓말하자 군터는 하겐이 바로 그 멧돼지였다고 말한다. 하겐이 군터를 죽이고, 반지에 다가가자 지그프리트 시신의 손이 그를 막는다. 놀란 하겐은 꼼짝하지 못한다. 이때 자신이 속은 것을 안 브륄힐데가 들어와 지그프리트 시신의 화장을 명하고 시신을 장작더미 위에 얹게 한다. 그녀는 지그프리트의 손에서 반지를 빼내 자신의 손에 끼고 자신의 말 그라네와 함께 지그프리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불 속으로 뛰어든다. 이때 라인강이 힘차게 범람하면서 불을 휩쓸어 버린다. 세 명의 라인강의 처녀들이 나타나자 하겐은 그들을 경계하며 반지에 다가가지 말라고 외친다. 라인강의 처녀 보그린데와 벨군데는 그의 목에 팔을 끼어 강으로 끌고 가서 죽이고 플로스힐데는 반지를 되찾아 기뻐한다. 지평선에 붉은 광채가 나타나며 그 빛 가운데 라인강은 원래의 강바닥으로 돌아간다. 타버린 홀의 폐허 속에서 그 빛은 발할라로 바뀌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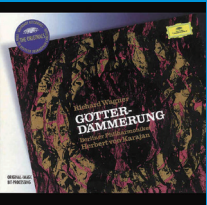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들을만한 Album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ecca, 1964)
지휘 : 게오르그 스티
볼프강 빈트가센(지그프리트),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군터),
브리짓 닐슨(브륄힐데),
고트로브 프리(하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DG, 1970)
지휘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헬게 브리오프(지그프리트),
헨가 데르네쉬(브륄힐데),
칼 리더부쉬(하겐), 토마스 스투어트(군터)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DG, 1967)
지휘 : 칼 뵘
볼프강 빈트가센(지그프리트),
브리짓 닐슨(브륄힐데)

“맞는 것보다 4등이 더 무서운” 세상

묵인된 폭력과 줄세우기



34년 전, 우수한 고입 연합고사 성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소년은 담임 선생님께 “년 서울대 감이야”란 말을 들으며 월말고사 등수가 하나 떨어질 때마다 오동나무 막대기에 엉덩이를 한 대씩 내어 주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장래 맛있는 외교관이나 훌륭한 기자가 되길 꿈꾸면서, 외국에 나가셨던 아버지가 병을 얻어 귀국하셨던 그해 여름방학 “너는 나처럼 주위사람 눈치 보지 않게 의사를 해라”란 말에 생애 처음으로 전과기록(문과에서 이과로)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착한 아들’이기를 자처했던 소년은 그다지 굳건하지 못했고 벡터와 함수, 황도-백도 같은 누런 갱지 안에 적혀있던 굴치 아픈 그림과 숫자들보다는 오락실과 농구장이 더 적성에 맞았다. 죽어도 재수하기는 싫었던 그는 그냥 적성(적당한 성적)에 맞추어 서울 시내의 만만한 의대에 입학했다. 지옥과도 같았던 예과 1학년은 세 개의 F학점, 첫사랑 여자(그는 그녀를 파랑새라 불렀다)로부터의 마지막 결별 통보, 8kg의 체중 감소, 수학 재시,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었던 세모의 어느 날 1학년 전체 회식, 피를 토하며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면서 끝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는 평생 1등이 되지 못한 채 ‘옹꼬리보다는 뱀대가리가 되자’고 스스로 속여가며 살고 있다.

몇 년 전 허망하게 죽어간 환자 옆에 황망히 무릎을 꿇은 내게 보호자가 남긴 한 마디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른다. “병원 응급실로 왔던 그때 A병원 이 아닌 여기로 온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라는. 비록 고등학교 1학년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흘러왔지만 나름대로는 내가 할 수 밖에 없는 일들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열심히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과 권한, 의무는 커지고, 그만큼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채 사방이 옥죄어 오는 답답함을 느끼는 일도 많아졌다. 혹시 지금 내 후배, 제자들도 이런 열등감과 피로감, 그리고 체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남을 이기면 일등이 되지만 자신을 이기면 일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어릴 때부터 줄 세워서 등수를 매기는 습관에 길들여져서 이런 시답잖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방송에 나올 법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흙수저의 입지전적인 인생성공담에 불과할 거라고 내심 단정을 짓는다. 진입 문턱은 분명 존재하고 살아 남은 상위 극소수의 선택 받은 사람들(좋은 학교, 상류층 출신, 기타 동일한 계급적 표상들)이 자리잡은 그 ‘위’는 엄청나게 배타적인, 그러나 너무도 달콤한 꿀이 흐를 것 같은 상그리아일 것이다.

수영을 좋아하는 소년이 있다. 물속 풍광이 마음에 들고 유영을 하면서 보는 햇살이 좋고 친구들과 떠드는 게 재미있을 뿐이다. 재능은 있는데 매년 4등만 하는 준호를 뒷바라지하는 엄마는 속이 상하다. 아이의 내면에 승부욕이 없음을 직감한 엄마는 중대결심을 하여 과거 수영천재였지만 현재는 그냥 평범한 수영코치로 전전하는 광수를 만나 아들을 1등으로 만들어 주길 부탁한다. 그리고는 예견한대로 코치의 사랑의 매(체벌의 미화)의 힘에 힘입어 준호는 1등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아슬아슬한 2등이 된다.

준호의 동생 지호는 옷을 갈아입던 형의 몸에 난 생채기를 발견하고는 고기를 구워먹던 자리에서 가족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그동안은 매를 맞지 않아 4등만 했던 것이냐고. 그 순간 비겁함이란 보이지 않는 망토는 엄마와 아빠 모두를 둘러 싸버린다. 과정

은 생략한 채 결과만 좋으면 어찌되어도 좋다는 무시무시한 암묵적 합의는 가정을 편안한 쉼터가 아닌 전쟁터의 연속으로 만들어 버린다. 아빠가 이런 과정을 몰랐을 까닭이 없을 터이지만 엄마의 단말마적인 발악은 가족 모두를 망연자실하게 만든다. “나는 준호가 맞는 것보다 4등인 게 더 무섭다”.

영화 **4등(2016)**의 마지막 장면은 전적으로 준호의 입장에서 쓰여진다. 코치와 엄마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물 속에서 시험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놀이를 완성하기 위한, 자유의지로서의 수영 행위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당시 꼴찌로 레인을 통과하던 가난한 제3세계 수영선수의 그것과 묘하게 맞닿아 있다. 둘 다 박수를 받지만 준호는 바라던 일등을 했다는 결과가 다르다.

재능은 있었지만 아시아신기록을 가졌던 자신을 통제하지 않았던 대표팀 코치의 수수방관 때문에 스스로 낙오되었다는 믿음을 가진 준호의 코치 광수의 빗나간 교육방식은 드림 치는 게 미칠 듯이 좋았던 대학신입생 앤드류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가학적인 교수 플래처의 그것과 매우 닮아있다. **위플래쉬(2015)**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을 구현하기 위해 사제시간이라는 클리셰를 차용하여 열정과 재능을 가진 천재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닥달하여 제자를 자신과 똑같은 광인으로 만드는 또 다른 영재교육을 보여 주고 있다.

모욕과 폭력을 묵묵히 참고 수련하던 제자는 어느 순간 드림 이외에는 인생의 목표가 없어져 여자친구와도 무덤덤하게 작별하고 사제시간을 정리하여 각자의 길을 걷게 되던 중 브레이크없는 기관차처럼 지휘자로 만난 옛 스승에게 폭주한다. 마지막 연주과정은 내내 총성과 폭발음, 비명이 가득한 아버지환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채찍질과 재즈 밴드가 연주하는 드림의 독주 부분을 모두 의미하는 중의적인 제목 ‘위플래쉬’는 일류를 쟁취하기 위하여 세상과 단절하는 음악 스릴러 영화로 보아도 무방하다. 플래처가 한 말 “세상에서 가장 쓸 데 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는 그런 면에서 섬뜩하다.

도식화된 제도권이라는 명징한 결계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기득권층이 사회의 안녕이란 명제를 충족하고자 스스로 만들어 낸 통념이라는 울타리는 학생시절부터 작동하기 시작한다. 규율 내에서 주목 받지 못하고 뒤처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제아가 되어버린 앙트완은 무관심한 부모와 억압적인 학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일탈을 거듭하고 달리지만 결국 소년원에 갇히게 된다.

400번의 구타(2016)의 마지막 장면. 소년원에서 빠져 나온 그가 쉴 새 없이 달려 달은 곳은 파도만 일렁이는 바다였다. 뒤통수를 가득 잡은 카메라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소년의 얼굴로 대체된다. 보호소로 실려가는 차 안에서의 눈물과 너무도 대조되는 소년의 아무런 대책도 없는 멍한 얼굴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드랑이의 가려운 날개를 접으며 타협해야 하는 우리의 박제된 자화상이기도 하다.

아들이 재수를 하고 또 반수를 하면서 대학입시에 매달릴 때까지 몰랐다. 우리 사회의 층층으로 정립된 학교서열이란 것이 얼마나 준엄하고 뛰어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는지를. 그저 막연히 나의 회색빛 학창시절처럼 세월이 지나면 웃음을 머금게 하는 정도의 통과의례로만 생각했었다. 그렇게 젊음을 소진하고 있는 후배 전공의들의 모습 역시 한 칸에 떠 오른다. 생활공간인 의국을 일부 빼앗기고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 허덕이며, 율행이적 생각 못하는 선배이자 스승인 교수, 그리고 항상 녹음기를 켜 준비가 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환자 보호자 사이에서 어서 전문의가 되어 날개를 펼쳐 4등짜리 병원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을...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사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볼만한 Movie



4등(2016)
감독 : 정지우
출연 : 유재상, 박해준



400번의 구타(2016)
감독 : 프랑수아 트뤼포
출연 : 장 피에르 레오, 클레어 모리어



위플래쉬(2015)
감독 : 다미언 차젤레
출연 : 마이클 펠러, J.K.시몬스

바로크 미술을 화려하게 꽃피운 손끝에 찾아온 어둠

페테르 파울 루벤스 | 통풍 & 류마티스내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 1612-1614

글. 방소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동화 〈플랜더스의 개〉의 주인공 네로의 꿈은 그가 동경하는 화가 루벤스의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를 다시 보는 것이었다. 이렇게 문학 작품 속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화가 루벤스는 17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화가로, 팔에 찾아온 통풍에도 불구하고 평생 3천 점이 넘는 그림을 그리며 전 유럽적 명성과 성공을 얻으며 바로크 미술 양식을 확립했다.

미술계의 거장 루벤스와 통풍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는 독일 태생으로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벨기에 화가이다. 그는 역동성, 강한 색감, 그리고 관능미를 추구하는 환상적인 바로크 스타일을 확립한 화가이기도 했다. 루벤스는 초상화, 풍경화, 신화나 사실을 바탕으로 그린 역사화, 그리고 교회 제단을 위해 그린 반종교개혁적인 세 폭 제단화로 유명하다. 유럽 전역의 여러 귀족과 미술품

수집가에게 유명했던 안트베르펜의 화실을 운영한 루벤스는 인문학자이자 미술품 수집가였으며 스페인의 펠리페 4세와 잉글랜드의 찰스 1세에게 기사 칭호를 부여 받은 외교관이기도 했다.

루벤스는 통풍으로 인해 불편한 손을 가지게 되었지만 다양하고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수많은 신화 속 이야기를 그리기도 했던 루벤스의 붓은 고대와 현대의 거장들로부터 얻은 배움을 바탕으로 북유럽의 미술을 꽃피웠다.

생의 단계마다 자화상을 그렸던 루벤스의 1639년 자화상을 보면 통풍으로 불편한 손을 장갑으로 숨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평생 3천 점이 넘는 그림을 남긴 루벤스는 팔의 관절통으로 힘들어 하다 결국 63살의 생일을 한 달 앞둔 1640년 5월 30일, 통풍으로 인해 번진 심장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다.

통풍의 진단 및 치료

통풍은 퓨린(Purine, 생명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기화합물이나, 몸 밖으로 배출

될 때 변환되는 ‘요산’이 과도하면 관절염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대사의 이상과 신장에서의 요산 배설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 체내에 과잉 축적된 요산 결정을 면역반응에 의해 백혈구가 탐식하면서 관절과 관절 주위 조직에 재발성 발작성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전신성 대사성 질환이다. 관절의 염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재발성 발작을 일으키며, 요산염 결정에 의한 통풍 결절(Tophi)이 침착되면서 관절의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통풍은 관절염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과도 관련이 높다.

통풍은 임상 양상에 따라서 분류된다. 가장 흔한 것은 급성 통풍 발작(Acute gout attack)이다. 급성 통풍 발작이 지나가면 전혀 증상이 없는 간기 통풍기(Intercritical gout)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는 급성기에 아무리 심한 통증 발작이 있었어도 전혀 아무런 증상이 없는 기간을 경험하게 된다. 다른 형태로는 만성 통풍 결절성 관절염(Chronic tophaceous gout)이 있다. 급성 통풍 발작이 반복되면



자화상, 1639



삼미신, 1636-1638

서 간기가 점점 짧아지다가 최종적으로는 지속적인 관절염으로 진행되는 것이 만성 관절염 단계이다. 만성 관절염의 단계에 접어들면 관절 이외에도 피하조직에 침착되어 결절을 형성한다.

통풍 결절은 손가락, 손, 발가락, 발목, 무릎 등의 부위에 비대칭적이고 울퉁불퉁한 덩어리를 형성하므로 더 큰 장갑이나 구두가 필요해진다. 결절의 형성은 서서히 일어나며, 비록 결절 자체의 통증은 약하더라도 침범 부위의 관절에 점진적인 팽팽함이 생겨나며 지속적인 통증이 종종 발생한다. 결국 관절의 광범위한 손상과 함께 피부 밑에 큰 결절이 생성되며 손과 발의 변형이 진행되고 만다.

통풍의 진단에는 육안적으로 통풍 결절이 보이는 경우, 관절액, 점액낭 또는 통풍결절로부터 뽑은 검체에서 요산 결정이 편광현미경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통풍은 관절액에서 요산 결정을 관찰함으로써 진단할 수 있지만, 관절액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임상증상, 혈액검사 및 영상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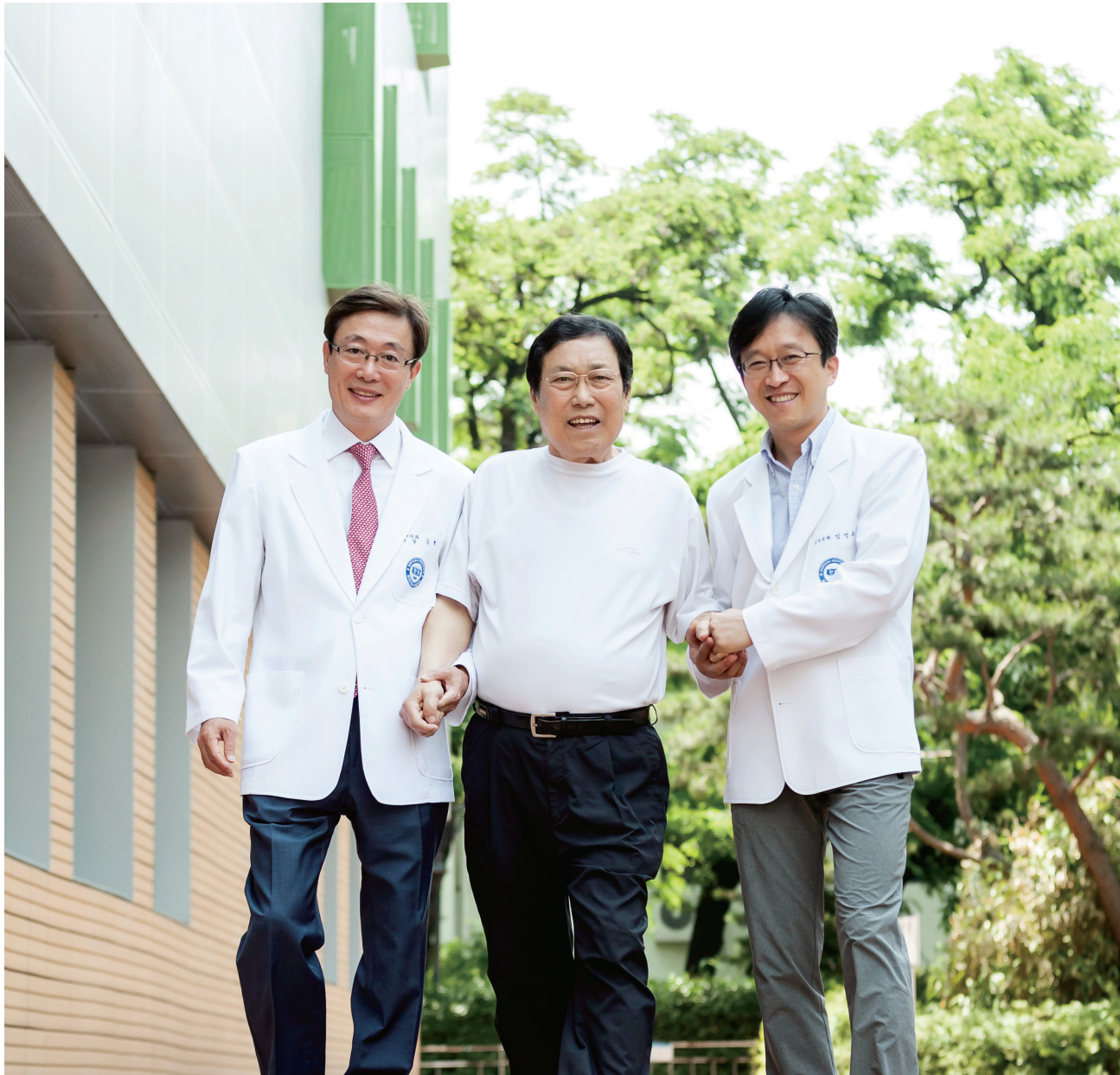
사에 따라서 진단을 할 수 있다.

환자들은 식이습관이나 생활방식, 운동습관, 체형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치료지침에 따르는 것보다는 환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중요하다. 급성 통풍 발작은 발생 24시간 이내에, 가급적 빨리 약물로 치료해야 한다. 또한 통풍 발작을 예방하기 위한 요산저하 치료를 한다.

통풍 환자는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금주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통풍 환자들이 비만인 경우가 많으므로, 규칙적인 열량 제한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술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고요산혈증이 악화되고, 장기간 술을 마시는 것 역시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다. 통풍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식이요법과 생활습관개선, 약물치료이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대사증후군, 신장질환 등의 동반질환도 반드시 함께 치료해야 한다.☺

“선물 받은 새 삶, 감사히 쓰겠습니다”

김혁 흉부외과 교수님, 임영호 심장내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심각한 대동맥류로 한양대학교병원을 찾은 박대식 환자는 심각한 합병증이 우려되어 심장을 완전히 정지시킨 후 진행해야 하는 표준수술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결국 흉부외과 김혁 교수와 심장내과 임영호 교수팀의 하이브리드 수술로 제2의 인생을 선물받았고, 부쩍 밝아진 얼굴로 두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양대학교병원을 찾았다. 정리, 백미희 사진, 김지원



새 삶을 선물해준 교수님들께

안녕하세요, 김혁 교수님, 임영호 교수님. 교수님들 덕분에 새 삶을 얻은 박대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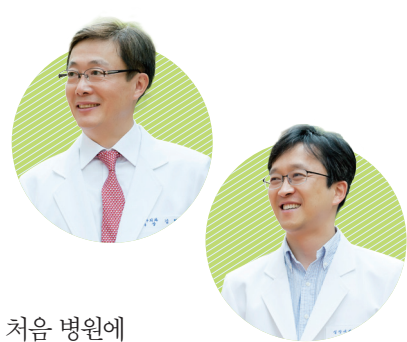
제가 한양대학교병원을 처음 찾았던 게 2003년이니, 어느덧 13년이 지났습니다. 꾸준히 병원을 찾은 덕분에 6개월 전, 제 몸의 병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후 입원 검사를 권유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긴급히 수술을 받게 됐지요.

사실 수술 직후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변상황이 잘 인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이 매일같이 제 병실에 들러서 상태를 확인해주시던 모습은 기억납니다. 토, 일요일에도 빼놓지 않고 중환자실을 찾아서 꼼꼼히 상태를 체크해주셨죠. 일반입원실로 옮기고 나서는 주치의이신 임 교수님이 다시 제 상태를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수술 후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에서 두 분과 병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에 제가 받은 수술이 무척 어렵고 복잡한 수술인데, 두 교수님이 가족들에게 수술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가족들도 흔쾌히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왜 이 수술이 필요한지,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니 가족들도 믿음을 가지고 저를 맡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병실에서 눈을 떴을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김혁 교수님과 임영호 교수님 두 분께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서서히 돌아올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주셨습니다. 게다가 수술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몸이 회복되어 가고 목도 점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지요. 10년이 넘게 한양대학교병원을 고집한 제 선택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2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요. 더불어 고마운 두 분을 만나고 나니,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대식 드림

박대식님께



몸은 많이 좋아지셨죠?
이제는 목소리도 어느 정도 나오고 참 좋아보이십니다. 박대식님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중환자실에서 혈압조절, 산소공급 등의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동맥궁 및 하행흉부대동맥에 파열직전의 큰 대동맥류가 있었는데, 혈관기형까지 있어서 수술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기저질환으로 심박세동, 비후성 심근증 및 심부전, 당뇨 및 비만, 좌측 횡격막 마비까지 동반하고 있어서 대동맥류에 일반적인 수술인 체외순환을 이용한 완전치환술로는 심각한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심장을 완전 정지시키고 체외순환하는 일반적인 수술 방식으로는 수술 후 의식회복조차 장담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흉부외과와 심장내과가 손을 잡고 하이브리드 수술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수술이라고 무조건 경과가 좋고 합병증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박대식님의 경우에는 표준수술 방식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이 너무 커서 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낮은 수술이라 가족들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환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저희를 믿어주시는 만큼 저희도 꼭 수술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와 심장내과뿐만 아니라 마취과, 영상의학과 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수없이 의견을 나누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저희한테 설명을 듣고는 차분히 증세를 호전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참 의연해 보이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한 만큼 경과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물론 박대식님이 그만큼 저희의 이야기에 잘 따라주신 것도 있겠죠. 특히 박대식님은 혈압 및 당뇨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감량도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수술도 성공적이고 경과도 아주 좋지만 앞으로 더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김혁, 임영호 드림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민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한국 여성 유방암의 특징

유방암은 현재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한국 여성에서 발병 증가율이 가장 높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자, 진단부터 사망까지 의료비가 가장 높은 암이기도 하다. 한국 여성 유방암의 특징으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40대 젊은 환자의 발생률이 높으며, 40세 이하 환자도 약 15%를 차지한다. 국내 유방암은 5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폐경 전 유방암의 발생비율이 폐경 후 여성보다 낮기는 하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서구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 이 멍울의 약 80%는 양성으로, 특히 50세 이상 폐경 후 여성에게 멍울이 나타났다면 유방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그밖에도 전체 유방암 환자의 1%는 유두가 분비되는 증상이 나타나며, 혈액성 유두 분비가 나타나기도 한다.

Point.1

한국 여성 유방암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

비만, 음주, 흡연 줄이고 정기 검진 필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자가 검진과 병원 검진,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체 유방암 환자의 5~10%만이 유전과 관련이 있으며, 대다수의 나머지 환자는 식이 습관, 환경 요인 등의 원인으로 유방암이 발생한다. 비만과 음주, 흡연을 조심해야 하는데, 과도한 지방 축적은 체내의 여성 호르몬을 높여 호르몬 영향을 받아 성장하는 유방암의 발생을 높일 수 있다. 특히 폐경기의 비만은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확률이 10~20% 정도 증가한다.

30세 이상 여성의 경우 매월 자가 검진을 실시하고, 35세 이상은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검진, 40세 이상은 1~2년 간격의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술을 하는 것이 좋다. 고위험군 여성의 경우 유방 전문 의와 상담을 받도록 한다.

Point.2

꾸준한 검진과 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구리보건소가 함께하는 '시민 건강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구리보건소에서 진행된 강좌의 내용입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7+8월의 건강강좌 소식은 46페이지 한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YANG NEWS

2016년 4월 ~ 2016년 6월

한양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수술 시대'의 개막



본원은 최근 '하이브리드 수술'을 통해 파열직전 심혈관 환자의 골든타임을 성공적으로 잡으며 수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이브리드 수술은 심혈관과 전신 혈관의 진단은 물론 내과적 중재 시술과 외과적 수술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복합 진료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흉부외과 김혁 교수, 임영효 교수팀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파열 직전의 대동맥궁 대동맥류를 가진 65세 남자 환자에게 하이브리드 수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대한민국 ROTC 중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본원은 지난 4월 27일 대한민국 ROTC 중앙회와 상호 발전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 발전에 필요한 추진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할 예정이며, 본원은 ROTC 중앙회 회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진료 절차에 따른 편의 제공을 하게 된다. ROTC 중앙회는 본원을 공식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고, 진료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하기로 했다.

개원 44주년 기념 '한마음 걷기대회' 열어

본원은 교직원 화합의 장을 통한 행복이 충만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30일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원 44주년 기념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



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보직자와 의료직,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 등 전 직종의 교직원 및 가족들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마음 걷기대회'는 한양여자대학교 운동장을 출발해서 무학교를 경유해 다시 출발장으로 집결하는 총 7km 코스였다. 걷기대회가 끝난 후에는 교직원 상호간에 화합과 교류를 위한 다과 회가 열렸으며, 푸짐한 경품행사도 진행됐다.

개원 44주년 기념식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3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원 4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광현 병원장은 "지금의 본원이 있기까지에는 전 교직원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 교직원이 고객감동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말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교직원들에게 '모범직원상'이 수여됐다. 간호국 송호정 계장 외 2명이 '이사장상', 시설팀 김영호 계장이 '총장상', 응급의학과 윤인아 계장 외 1명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 간호국 김선주 계장 외 14명이 '병원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해 동안 언론홍보활동을 많이 한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한양교수언론상'은 가정의학과 황환식 교수,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 피부과 김정은 교수가 받았다. 내과 유현승 전공의 외 3명은 '의무기록상', 성형외과 이재현 전공의 외 3명은 '친절직원상', 인사총무팀 김기라 계장 외 2명은 '환자모시기왕', 수술실은 '우수부서상', 남서울교회 화종부 담임목사 외 1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본원과 이지함화장품은 지난 5월 4일 동관 8층 제1회 의실에서 의료 소외계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지함화장품은 의료 소외계층 아동의 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본원은 치료 중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광현 병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기업의 이익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며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라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박중독 전문 의료서비스 시작



본원은 지난 5월 26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도박중독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본원은 도박중독 대상자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중독 외래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3월부터 중독전문 진료를 시작한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는 "도박중독은 교육과 상담 그리고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약물 유해반응 심포지엄' 개최

본원 지역약품안전센터는 지난 6월 8일 본관 3층



강당에서 '2016년 약물유해반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본원 응급의학과 오재훈 교수가 '의약품부작용에 의한 응급실방문 경험과 관리',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현 교수가 '의약품부작용에 의한 응급실방문 현황과 역학', 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 권혁수 교수가 '아나필락시스의 진단과 관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광정 팀장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제15회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회



본원 간호국은 지난 6월 10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제15회 임상간호연구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광현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바쁜 임상현장에서 이론과 실제를 접목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의 성과물인 논문 발표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간호국의 노력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발표회에서는 '간호신념의 과거·현재·미래(김분한 한양대 간호학부 교수)'라는 주제의 특강과 더불어 총 6편의 임상간호연구논문과 1편의 석사학위논문 발표가 진행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남양주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남양주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 북부보건센터 3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신



경과 최호진 교수가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5월 20일에는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교수가 '당뇨병과 비만'을, 5월 23일에는 소아청소년과 김자혜 교수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6월 1일에는 산부인과 이정환 교수가 '임신은 축복, 출산은 축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 개소식 열어



본원은 지난 5월 11일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응급실 구축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소한 감염병 안심 응급의료센터는 발열환자 감시, 감염병 의심환자 격리, 출입자 파악과 통제 등이 가능하며, 응급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한 설비 및 환경도 개선됐다. 전문의 5명, 전공의 8명, 인턴 2명, 간호사 25명의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본원 응급의료센터는 연 4만 명의 진료규모를 갖추고 있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13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최준호 교수가 '자살예방'을, 6월 3일에는 외과 최민영 교수가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제18주년 개원기념식' 및

'제6회 류마티스병원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27일 본원 1층 로비에서 '제18주년 개원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광현 한양대학교병원장, 황성우 경영지원실장 등 주요 보직자와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했다. 배상철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구성원들이 본원을 최고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최선의 환자 치료는 물론이고 유능한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여, 진료와 연구 그리고 사회공헌을 통해 본원의 명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한양종합기술원(HT) 6층에서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류마티스질환 치료'를 주제로 '제6회 류마티스병원 심포지엄'도 개최됐다.

인물 동정

이병로 교수팀, 대한안과학회 '구연 학술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이병로 교수팀(안성준 임상강사, 김지홍 전공의)이 지난 4월 9~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제115회 학술대회'에서 '구연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의 제목은 '전충원공과 표충원공의 발생기전이 상이함을 증명하는 최초의 연구'로, 전충원공과 표충원공 두 질환과 망막앞막과의 연관성을 바

탕으로 두 질환이 서로 다른 발생기전을 가진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김대호 교수팀,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별도구' 최초 개발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별도구'가 개발되어 국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 대해 빠르고 표준화된 진단이 가능해졌다.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대호 교수팀(제1저자 장재혁 전공의, 김석현 교수, 호남대 장은영, 계요병원 박주연, 강북삼성병원 배활립, 을지대 한창우 교수)이 개발한 이 도구는 기존의 국제 표준화된 정신질환선별검사 90문항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 28개 항목만을 뽑아 국내에 맞게 해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SCI)인 대한의과학회지(JKMS)에 '한국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별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라는 제목으로 5월호에 실렸다.

최민영 교수, SCI논문게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과 최민영 교수팀(삼성서울병원 이세경 교수, 이정언 교수, 남석진 교수, 신촌세브란스병원 박형석 교수, 성빈센트병원 임승택 교수, 아주대학교병원 정용식 교수, 울산대학교병원 고병균 교수, 한국유방암학회)이 국제 학술 잡지 'Medicine'(IF=5.723), 2016년 4월호에 'Characterization of Korean Male Breast Cancer Using an Online Nationwide Breast-Cancer Database'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김정태 교수, '제13차 유람미세수술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김정태 교수가 지난 4월 21일 ~ 24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제13차 유람미세수술학회'에 초청되어 미세재건수술에 대한 27지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임한웅 교수, 창의적자산 실용화 지원사업 '우수기술' 선정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의 발명특허가 '대학 창의적자산 실용화지원사업(브릿지사업)'의 '우수기술'로 선정되었다. 브릿지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여 대학의 창의자산을 발굴하고, 실용화와 기술창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우수기술'로 선정된 임교수의 발명특허는 '누액통과부를 포함하는 비루관 튜브'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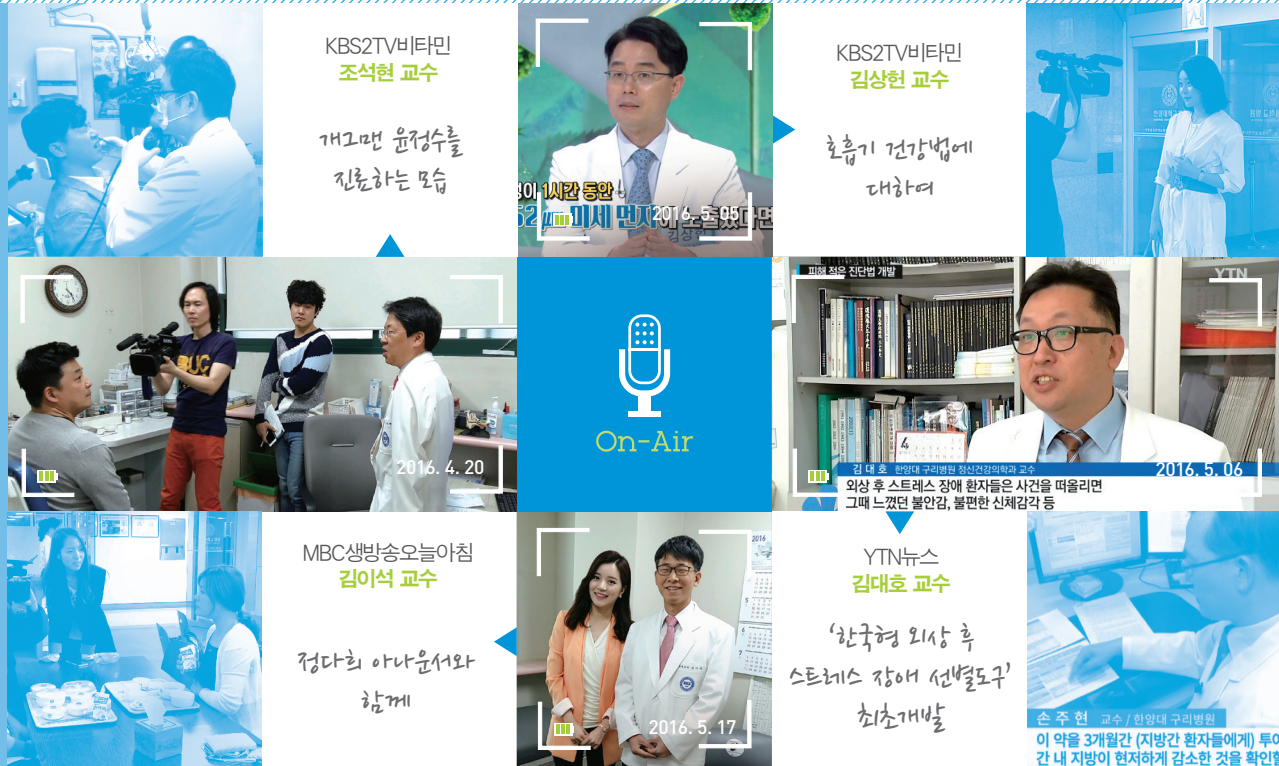
김동선 교수, 대한내분비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동선 교수가 대한내분비학회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김동선 교수는 지난 4월 28일 쉐라톤 위커향에서 개최된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의 총회에서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이다.

오재원 교수 저서 '꽃가루와 알레르기' 우수학술도서 선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의 저서 「꽃가루와 알레르기」가 2016년 대한민국의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꽃가루와 알레르기」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많은 식물들과 연관지어 분류, 식물들의 생태, 계절별 분포를 다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김영일 계장,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보마케팅팀 김영일 계장이 지난 5월 2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봉사와 선행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6년 4월 ~ 2016년 5월



한양대학교의료원 공구 의과대학 기초교실 교수 SBS [뉴스]/ 5월 3일/ 유방암 만드는 유전자 규명 외 1건 **한양대학교병원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KBS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 6일/ 콩팥 건강법 **김근호 신장내과 교수** KBS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월 6일/ 콩팥 건강법 **김미정 재활의학과 교수**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4월 6일/ 특발성 뇌압상승증 앓는 6살 아이, 5월 5일/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8살 아이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YTN [신물의 출발새아침]/ 4월 11일/ 미세먼지 높으면 건강한 사람도 안심할 수 없어, KBS2TV [비타민]/ 5월 5일/ 호흡기 건강법, SBS [모닝와이드]/ 5월 10일/ 숨은 초미세먼지를 찾아라! **김동선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YTN사이언스 [건강돋보기]/ 4월 11일/ WHO, 올해 주제로 당뇨 선정 **최중섭 산부인과 교수** YTN사이언스 [건강돋보기]/ 4월 14일/ 자궁경부암 백신 6월 무료 접종 시행, KBS1R [라디오주치의]/ 5월 23일/ 건강이슈-자궁경부암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KBS1TV [소비자리포트]/ 4월 15일/ 요양병원의 이면 **송인석 안과 교수** KBS1R [라디오주치의]/ 4월 20일/ 백내장, 노인 **황환식 가정의학과 교수** EBS [건강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4월 28일/ 건강하게 아름답게-부부의 도전, 5월 5일, 12일, 19일, 26일/ 아름답고 건강한 몸만들기, SBS [모닝와이드]/ 5월 23일/ 다이어트 적 공복

감을 이겨라, TV조선 [내몸PLUS]/ 5월 29일/ 복부비만 **엄지은 혈액종양내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5월 10일/ 급성백혈병 **최동호 외과 교수** KBS2TV [비타민]/ 5월 12일/ 간염 **노영석 피부과 교수** YTN사이언스 [건강돋보기]/ 5월 13일/ 강한 자외선, 햇빛 알레르기 유발 **김이석 정형외과 교수** MBC [생방송오늘아침]/ 5월 19일/ 내가 먹은 음식 때문에 골절에 사망까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MBC [이슈투데이]/ 4월 1일/ 봄의 불청객 꽃가루 많아지고 독해졌다, KBS1R [라디오 주치의]/ 4월 4일~6일, 11~13일, 5월 2일~4일, 13일~15일, 20일~22일, 27일~29일/ 뮤직테라피, MBC [이브닝뉴스]/ 4월 14일/ 봄철 날들이 야생 진드기 조심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뉴스]/ 4월 13일/ 봄·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우울증 더 심하다? 외 1건 **최호진 신경과 교수** YTN사이언스 [뉴스]/ 4월 19일/ 치매 환자 매년 11% 증가 **김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YTN사이언스 [뉴스]/ 5월 6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기억의 고통 없이 진단한다 **손주현 소화가내과 교수** MBC [뉴스]/ 5월 18일/ 봄꽃의 천연성분 활용한 의약품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유대현 류마티스내과 교수** YTN [뉴스]/ 4월 6일/ 셀트리온 세계 최대 미국 시장 뚫었다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KBS1R [라디오주치의]/ 5월 3일/ 류마티스관절염

한양대학교의료원 공구 의과대학 기초교실 교수 중앙일보/ 5월 9일/ 유방암 유전체 규명 환자별 맞춤 정밀 의료 5년 내에 가능할 것 **최보을 의과대학 기초교실 교수** 서울신문/ 5월 18일/ 메르스 그후 1년 우리는 얼마나 달라졌나 **한양대학교병원 윤호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한국경제신문/ 4월 1일/ [한경에세이] 전문가에게 맡겨라, 4월 8일/ 목표 달성과 유지, 4월 15일/ 목련 꽃 필 무렵, 4월 22일/ 별이 된 환자들을 기다리며, 4월 29일/ 유비무환, 조선일보/ 5월 4일/ 알파고 시대, 우리 애는 알파 백수로 **김희태 신경과 교수** 한국일보/ 4월 5일/ 흑시 파킨슨병 외 4건 **조석현 이비인후과 교수** 중앙일보/ 4월 6일/ 목 굵고 코고는 사람, 수면무호흡증일 확률 높다 외 2건 **김정태 성형외과 교수** 경향신문/ 4월 17일/ 스리랑카 화상 소녀 한국서 재활수술 성공 외 2건 **하태경 외과 교수** 매일경제신문/ 4월 25일/ 한양대의대팀, 급사 위험 카자흐 초고도비만 모녀 살려 외 1건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국민일보/ 4월 30일/ 게임도 중독되면 병?, 5월 2일/ "게임중독도 질병" 불구 대처방안 마련 하승세월 **박정환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조선일보/ 5월 1일/ 당전! 설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 외 1건 **최동호 외과 교수** 조선일보/ 5월 1일/ 간암 이겨내고 다시 일 시작한 비결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조 외 2건 **최중섭 산부인과 교수** 매일경제신문/ 5월 4일/ 자궁경부암 백신



6월부터 무료접종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매일경제신문/ 5월 18일/ 팔팔한 백세준비 "아는 만큼 건강해져요", 조선일보/ 5월 31일/ 소화를 부탁해-속상한 한국인들, 역류성 식도염 **김용주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합뉴스/ 5월 23일/ 빨리 시작된 무더위, 연령대별 주의점은? **노영석 피부과 교수** 한국경제신문/ 5월 25일/ 젊은층 모발이식보다 병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필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동수 소화기내과 교수** 아시아경제/ 4월 3일/ 크론병 등 장질환, 아주경제/ 5월 17일/ 염증성 장질환, 연합뉴스/ 5월 26일/ 장질환 환자용 배려 화장실 서울 교대역에 첫 등장, 서울신문/ 5월 27일/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에 시달린다면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스포츠서울/ 4월 14일/ 본인 동의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 한겨레/ 5월 20일/ 정신질환자, 제2의 피해자 될 우려, 5월 23일/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적극 조치 **최민영 외과 교수** 국민일보/ 5월 4일/ 메디시誌에 '남성 유방암' 관련 논문 발표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5월 9일/ MRI 검사 멀쩡한데 요통 마음의 병 탓, 주먹 쥐었다 펴기 동료들과 수다 심호흡, 한겨레/ 5월 29일/ 조현병에 대한 세 가지 편견 **박예수 정형외과 교수** 국민일보/ 5월 9일/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헤럴드경제/ 5월 8일/ 퇴행성 관절염으로 혼동하기 쉬운 관절염

Event

Quiz

심각한 대동맥류로 일반적인 심장 수술을 시행할 수 없었던 박대식님은 한양대학교병원 김혁 교수와 임영호 교수가 팀을 이룬 이 수술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내과적 중재 시술과 외과적 수술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이 수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고마운 당신에게]를 참고하세요. 8월 20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5+6월 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최** cc***@hanmail.net
박** mych***@hanmail.net

강** suhee***@hyumc.com
권** dydg***@hanmail.net

이** lynnle***@hanyang.ac.kr
고** asa***@naver.com

김** ywsno***@naver.com
이** leega***@naver.com

최** yun***@hyumc.com
최** dias***@naver.com



http://wp.me/p70KzE-4by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 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6년 4월 ~ 2016년 5월 기부자 명단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1천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김금옥	동관7층	명시현	내시경실	신우중	마취통증의학과	이주한	영상의학과	최승석	성형외과
김은우	소방이비인후과의원	김남기	재무팀	문지웅	호흡기내과	신인철	약리학교실	이진규	정형외과	최정혜	혈액종양내과
전영	리온시스템	김대호	정신건강의학과	문진화	소아청소년과	신정훈	심장내과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최준석	탐이비인후과의원
현대카드주식회사		김동섭	KD밝은안과	문홍상	비뇨기과	심경아	분관11층	이철범	흉부외과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규	외과	박기철	정형외과	심재항	통증의학과	이혜순	류마티스내과	최충혁	정형외과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김범석	이침이비인후과소아과	박동우	영상의학과	여광호	진단검사의학과	이화준	Q팀	최희중	응급의학과
강정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봉유	원무팀	박미라	외과계중환자실	염종훈	마취통증의학과	임상혁	영상의학과	최호진	신경과
박재일	제일내과의원	김선기	영상의학과	박성욱	홍보팀	오미경	마취통증의학과	임완에	원목실	최홍용	비뇨기과
박충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승현	신경과	박시복	재활의학과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장성호	재활의학과	표주연	병리과
임병성	새생명일반내과의원	김양욱	신생아실	박예수	정형외과	원영웅	혈액종양내과	장재선	인공신장실	하루미	수술실
서인석	시원한 이비인후과	김영보	물류팀	박용미	분관9층	유교상	소화기내과	장지희	간강관리팀	한동수	소화기내과
손정화	우리들정형외과의원	김영호	정형외과	박용천	정신건강의학과	유미경	임상연구지원팀	전석분	중앙응급실	한명훈	신경외과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옥중	고객지원팀	박원희	치과	유정아	영상의학과	전선희	분관19층	한상웅	신장내과
이동규	이동규내과	김용수	영상의학과	박일규	진단검사의학과	유창성	진단검사의학과	전용철	소화기내과	한승훈	재활의학과
태암내과의원		김용호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종주	분관7층	윤명희	재활의학과	전우재	마취통증의학과	함수미	응급의료센터
		김우길	시설팀	박주원	의무기록팀	윤여필	물류팀(의공)	전재범	류마티스내과	홍상모	내분비대사내과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운용	기획팀	박지호	내과중환자실	은창수	소화기내과	정경희	분관6층	홍의호	핵의학과
김경현	한양대학교의료원	김윤영	치과	박찬혁	소화기내과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정규성	정형외과	황규태	정형외과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이석	정형외과	박창구	시설팀(시설)	이경식	감염관리팀	정미선	원무팀	황성우	경영지원실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김자혜	소아청소년과	박태선	호흡기내과	이광현	정형외과	정수경	간호국	황의순	고객지원팀
윤영선	한양대학교병원	김정수	피부과	박환철	심장내과	이규용	신경과	정우성	새음병원	황인자	간호국
이철웅	이아비인후과의원	김중현	정형외과	박환겸	외과	이봉근	정형외과	정재윤	소화기내과		
홍동균	본아비인후과의원	김준현	애스앤미안과의원	박희정	진단검사의학과	이상훈	이비인후과의원	정재호	이비인후과	10만 원 미만	
		김지영	핵의학과	반은주	제3중환자실	이석한	신경정신과의원	정재홍	정형외과	강다운	분관9층
		김지은	감염내과	방소영	류마티스내과	이선이	간호국	정진혁	이비인후과	강문주	분관11층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백근만	운영지원국	이숙희	동관7층	정진환	신경외과	강민아	진단검사의학과
		김창선	응급의학과	백은정	진단검사의학과	이슬아	분관11층	정희숙	보험심사팀	강석범	핵의학과
		김충현	신경외과	변순현	의무기록팀	이승욱	비뇨기과	조기섭	진단검사의학과	강성찬	외과
		김태승	정형외과	서우영	정형외과	이승환	이비인후과	조상윤	마취통증의학과	강성훈	진단검사의학과
		김태형	호흡기내과	서정원	영상의학과	이양섭	원무팀	조아라	영양팀	강신창	핵의학과
		김한준	외과	설인준	소아청소년과	이영석	정형외과	조영완	운영지원국	강영위	수술실
		김현욱	의료정보팀	신정철	성남이안과	이유경	영상의학과	조영진	내과중환자실	강영의	분관6층
		김희숙	약제팀	성민철	안과	이은희	분관5층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강윤성	의무기록팀
		남승혁	흉부외과	성외순	부속실	이정일	정형외과	조희윤	안과	강은미	분관10층
		남영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성정순	내과계중환자실	이정한	산부인과	지용배	이비인후과	강일규	강일규이비인후과
		남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손주현	소화기내과	이제인	약제팀	채영림	재무팀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노선균	흉부외과	손한숙	약제팀	이종	교육연구팀	최도전	분관8층	강지연	분관6층
		노정환	병리과	신동한	원무팀	이종숙	보험심사팀	최미경	간호국	강지원	기획팀
		류제일	신경외과	신순교	응급의료센터	이종희	분관5층	최민영	외과	강혜영	영상의학과
		명동안과의원		신웅운	안과	이주학	신장내과	최성일	심장내과	강혜숙	영양팀

명예의 전당

기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억 원 이상)



JAMIN WINOTO

(1천만 원 이상)



김동섭

(1천만 원 이상)



차상훈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고희경	2층내과	김민정	중앙공급실	김인호	약제팀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지혜	응급의료센터	신정미	영양팀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민희	국제행정지원팀	김지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류중백	시설팀(시설)	박진옥	피부과	신정은	인공신장실
공지현	심장센터	김민희	2층내과	김재희	영상의학과	류현숙	마취통증의학과	박진희	인공신장실	신창식	아비인후과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백수	동관7층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모지은	소화기내과	박춘아	수술실	신철우	진단검사의학과
권난희	영양팀	김병숙	원무팀	김정민	본관10층	문미영	의무기록팀	박현정	외과계중환자실	신현주	인공신장실
권미화	2층내과	김보미	신경외과	김정숙	고객지원팀	문미영	이식센터	박현혜	본관8층	신혜민	수술실
권보미	내과중환자실	김봄	본관11층	김정안	본관7층	문상희	내과중환자실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신희숙	응급의학과
권선미	본관6층	김상미	본관10층	김정언	외과	문영민	영상의학과	박혜경	코코아비인후과	심규진	본관7층
권순주	본관16층	김상훈	약제팀	김정은	본관11층	문재봉	시설팀(시설)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심규형	영상의학과
권연희	영양팀	김상희	본관11층	김정희	영양팀	문정희	본관9층	방민주	제3중환자실	심오라	보험심사팀
권오근	인사총무팀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주형	뇌이비인후과의원	문hun술	본관8층	방성주	대외홍보팀	안대웅	교육연구부
권웅덕	마취통증의학과	김선영	고객지원팀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문희애	본관6층	방지훈	신경외과	안명현	병리과
권유진	소아청소년과	김선영	영상의학과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민세인	본관11층	배순석	수술실	안미경	영양팀
권은진	아비인후과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중식	수술실	민소영	본관9층	배영주	본관10층	안삼순	2층내과
권혁천	고객지원팀	김신화	심부혈관집중치료실	김창금	영양팀	민진	신생아중환자실	배은희	보험심사팀	안석태	영상의학과
권현숙	본관5층	김성애	본관17층	김철한	재무팀	민현숙	약제팀	백필선	외과	안선미	내과중환자실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상철	병리과	김초롬	본관5층	박경림	보험심사팀	백형정	약제팀	안신영	보험심사팀
김경수	본관6층	김상훈	영상의학과	김초롬	본관6층	박경미	비뇨기과	백혜연	수술실	안유정	내과중환자실
김경숙	항암제조제실	김세정	본관11층	김춘애	영양팀	박경숙	간호국	변다솜	본관10층	안은종	의료정보팀
김경실	본관5층	김소란	본관10층	김태근	병리과	박경희	중앙공급실	서명진	주사실	안은진	2층내과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소연	본관10층(서울)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근배	보험심사팀	서병갑	영상의학과	안이슬	본관10층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소연	본관10층(구리)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경영	외과	서소연	소아청소년과	안정미	수술실
김규식	비뇨기과	김소영	동관7층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명호	환자이송반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안정은	본관11층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소윤	외과	김현일	외과	박미숙	영양팀	서승희	내과중환자실	안정현	아비인후과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수미	내과중환자실	김현조	킴스의원	박미순	원무팀	서승희	본관9층	안창신	물류팀
김기석	내시경실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현주	본관6층	박미옥	교육연구팀	서영남	본관8층	안혜옥	본관20층
김나영	본관18층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상혁	영양팀	서영은	본관5층	양길녀	본관7층
김다솜	약제팀	김순식	노동조합	김현창	물류팀	박신아	진단검사의학과	서현주	정형외과	양명화	간호국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현희	2층내과	박선영	내과중환자실	설명길	의료정보팀	양미영	영양팀
김도와	내시경실	김아름	본관5층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성경희	본관7층	양수웅	세탁실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형식	약제팀	박성찬	진단검사의학과	성명순	사회복지팀	양은주	내시경실
김두리	수술실	김양신	인공신장실	김형주	약제팀	박소은	영양팀	성혜윤	본관8층	양현	교육팀
김란	본관5층	김연정	재무팀	김혜리	본관17층	박수미	안과	손영성	본관9층	양효신	약제팀
김령	영양팀	김연주	병동서무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수정	수술실	손화신	대외홍보팀	엄기숙	영양팀
김령희	재무팀	김영미	아비인후과	김혜원	간호국	박순구	안과	송명신	본관10층	엄혜정	수술실
김명환	영양팀	김영선	본관5층	김황룡	진료부	박연희	수술실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여미진	본관10층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신	치과	김효준	물류팀	박예진	본관8층	송중훈	정형외과	여은주	본관6층
김미라	성형외과	김영연	수술실	김희원	본관5층	박용범	기획팀	송주영	2층내과	여은주	본관20층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영일	홍보팀	김하나	주사실	박유정	본관5층	송현수	시설팀(시설)	오금복	정형외과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니소정	수술실	박은수	본관10층	송현주	본관15층	오기향	비뇨기과
김미성	간호국	김영진	신경외과	니윤숙	2층내과	박은영	인공신장실	송훈남	재활의학과	오미혜	정신건강의학과
김미성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훈	물류팀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은형	고객지원팀	신대현	상쾌한아비인후과	오연이	영양팀
김미화	보험심사팀	김육원	영상의학과	나현영	제3중환자실	박용범	비상계획계	신명희	치과	오영숙	고객지원팀
김미희	동관7층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남기준	원무팀	박점현	본관11층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오유선	본관9층
김민선	영양팀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남순영	본관5층	박정우	신경외과	신수경	본관8층	오재훈	마취통증의학과
김민아	본관10층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노광규	인사총무팀	박주은	분만실	신수지	수술실	오정남	영양팀
김민정	본관6층	김은지	본관10층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지경	영양팀	신윤경	본관9층	오정숙	재활의학과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은희	수술실	노옥석	동관7층	박지애	Q팀	신재철	의무기록팀	오지현	주사실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오진영	2층내과	이경하	정신건강의학과	이은애	본관11층	전효선	수술실	최미옥	치과	허태영	진단검사의학과
오홍석		이경희	본관11층	이은영	신장내과	정경은	본관5층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허효숙	소화기내과
오화경	수술실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은주	보험심사팀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선경	재활의학과	현순희	소화기내과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이관석	인사총무팀	이은형	본관6층	정대천	원무팀	최선미	인공신장실	홍대영	인사총무팀
옥상열	홍보팀	이규택	신경과	이은희	인공신장실	정선주	내과중환자실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홍민영	비뇨기과
우순희	수술실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정식	보험심사팀	정선희	인공신장실	최성은	교육연구팀	홍성숙	내시경실
우정미	고객지원팀	이나리	본관10층	이정애	병리과	정수정	본관5층	최성환	아비인후과	홍숙의	병동서무
원혜정	부속실	이나영	수술실	이정은	시설팀(통신)	정승원	상쾌한아비인후과	최세연	원무팀	홍은미	내과중환자실
원홍석	인사총무팀	이도영	본관5층	이정인	당뇨센터	정예웅	심장센터	최소담	영상의학과	홍은자	내시경실
위영현	약제팀	이도현	수술실	이정화	주사실	정유정	본관17층	최순애	인공신장실	황미향	영상의학과
유고은	본관10층	이두리	제3중환자실	이정화	신경과	정은영	수술실	최승희	본관10층	황성환	교육연구부
유미화	물류팀	이두종	핵의학과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의숙	본관8층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황성희	본관11층
유병호	내과중환자실	이명숙	병리과	이종열	치과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영선	인공신장실	황영순	본관5층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이명주	약제팀	이주영	인사총무팀	정임숙	응급의료센터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황정선	마취후회복관리실
유선정	아비인후과	이미경	영양팀	이주현	중앙공급실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은영	본관8층	황준호	의료정보팀
유숙	병리과	이미경	보험심사팀	이주현	본관6층	정정미	본관10층	최재범	원무팀	황혜연	본관10층
유영미	내과중환자실	이미란	본관6층	이지현	심장센터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정연	대외홍보팀	황희수	영상의학과
유은희	제3중환자실	이미자	본관11층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정훈	2층내과	가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유정안	중앙공급실	이미정	본관10층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종석	영상의학과		
유정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이미정	중앙공급실	이현아	본관7층	정혜영	동관7층	최종은	보험심사팀		
유주량	본관5층	이민지	본관5층	이현주	본관7층	정훈	의료정보팀	최진실	본관5층		
유지학	원무팀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현주	원목실	조경숙	인공신장실	최창순	동관7층		
유현영	물류팀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현중	영상의학과	조광희	심장센터	최현구	본관8층		
유현주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상찬	차량계	이혜정	수술실	조구성	영상의학과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이새롬	본관11층	이호남	고객지원팀	조규선	영상의학과	최혜용	시설팀(통신)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이서윤	본관9층	이호문	영상의학과	조문형	원무팀	최희영	Q팀		
윤규리	본관10층	이선영	본관6층	이호웅	영상의학과	조은영	영상의학과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윤미영	본관8층	이선화	본관9층	임경숙	사회복지팀	조인옥	진단검사의학과	허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윤미인	본관6층	이선희	원무팀	임경순	신경외과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하은영	약제팀		
윤선미	영양팀	이성모	물류팀	임다현	본관10층	조현남	본관15층	하지윤	원무팀		
윤선애	본관6층	이성미	신경외과	임선경	본관11층	조현일	시설팀(시설)	한미경	신생아중환자실		
윤선희	영양팀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조형필	재활의학과	한상운	원무팀		
윤아름	본관10층	이수연	시설팀(통신)	임은실	산부인과	조환영	중앙공급실	한소담	본관10층		
윤은정	신생아중환자실	이수진	수술실	임은자	아비인후과	주찬미	본관7층	한수진	본관10층		
윤인숙	본관20층	이숙	고객지원팀	임인자	수술실	지미경	보험심사팀	한승희	수술실		
윤정아	외과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인현	병동서무	지은아	산부인과	한아영	수술실		
윤정희	약제팀	이순자	본관5층	임정연	시설팀(통신)	지혜정	의료정보팀	한정연	내과중환자실		
윤지선	본관6층	이승호	영상의학과	임주아	정형외과	진수희	내시경실	한주화	심장센터		
윤향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연우	신생아중환자실	임지영	영양팀	진춘희	영양팀	한초롬	본관10층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연주	정형외과	임천식	고객지원팀	채우석	채우석아비인후과	한현남	영양팀		
윤현순	고객지원팀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임한웅	안과	천경희	의료정보팀	한현수	의료정보팀		
윤희정	인공신장실	이영주	2층내과	임화영	비뇨기과	천다혜	본관9층	한현정	정형외과		
음희재	내시경실	이예린	아비인후과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천영복	물류팀(의공)	함명자	보험심사팀		
이가희	응급의료센터	이유리	제3중환자실	장운주	약제팀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함연순	외과		
이강연	비상계획계	이윤미	심장센터	장정아	인공신장실	천은선	외과	허성미	본관8층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전경신	성형외과	최규호	마취통증의학과	허정현	심장센터		
이경주	본관9층	이은경	인사총무팀	전미선	간호국	최다울	신생아실	허지선	본관7층		
이경철	기획팀	이은명	약제팀	전형수	대외홍보팀	최문정	본관5층	허지영	병동서무		

Hanyang Calendar

7
July



7.1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생활속의 응급처치법
- 응급의학과 최혁중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7.8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위드 앙상블
- 정애화, 플룻 앙상블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7.12 TUE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 김혜령 피아노 연주회
오후 12시
본관 1층 로비



7.15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 전재홍 피아노 연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7.23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일상생활 관리
- 추현식 간호사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7.29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클래식 기타 연주
- 김원태, 김사무엘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8
August



8.5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난청의 원인과 치료
- 이비인후과 이승환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8.8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내밀음악회
- 색소폰, 바이올린, 플룻 연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8.1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 김선영(한양밴드 보컬리스트/
영상의학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8.19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 비엔나국립대학
안명진(바이올린)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8.27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영양관리2
- 백혁준 영양사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창홍 최호순 윤병철 이오영 전대원 이항락	월, 화, 수, 금 수, 금, 토(1주) 월, 목 월, 수, 토(5주) 월, 화, 목, 토(2주) 금, 토(3주)	월 월 수 목 수, 금 월, 화	(7월 6일까지만 진료)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간질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강녕 곽주희 임동휘 이지영 이혜영	화, 토(4주) 수, 목 월 금, 토 화	목, 금 목 화 월, 수, 금	
심장내과 2290-8700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줄기세포치료,협심증, 고혈압
	신진호 임영효	월,수,금,토(4주) 수, 금, 토(3주)	수 월, 수	심부전, 심혈관중재시술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일반심장질환
	박진규	월,화,목,토(1,5주)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 심박동기
신장내과 2290-8300	강종명 김근호 이창화 박준성 최종욱	월, 화, 수, 금 월, 금, 토(3,4주) 수, 목, 토(1,2주) 화, 목, 토(3,5주)	화, 목 월, 금 월, 금 월, 수 수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전해질장애, 고혈압, 신부전, 부종, 복막투석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일반 신장내과질환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내사 내과 2290-8300	안유현 최웅환 김동선 박정환	월,화,수,목,토(2주) 월,화,수,금,토(1주) 월,수,목,토(3주) 화, 토(4,5주)	수 월, 화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일반 내분비내사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손장원 김상헌 박동원 박동원 구건우	월, 수, 토(4주) 월, 화, 목, 토(2주) 화, 목, 금, 토(1,5주) 수, 토(3주) 월~금	수, 목 금 월 화, 수, 금 월~금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폐결핵, 폐렴, 폐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중환자실전담전문의(08:30~17:30)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박병배 엄지은	월, 수 화, 목 금	화, 목 월, 금 월, 화, 수	만성백혈병, 골수종식질환, 림프종, 골수종, 기혈질환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형자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오성희 김남수 이영호 김용주 박현경 이현주 김자혜	화, 목, 토(5주) 목, 금, 토(2주) 월, 수, 토(3주) 월(구리), 금▲ 월, 수, 토(1주) 화, 토(4주) 목	월, 수 월, 화 목 화, 목 수 수, 목 목, 금 화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소아감염질환 소아심장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소아소화기영양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소아내분비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이현주	월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김승현 김희태 김현영 김희진 김영서 오기욱 박진석 하승현	월, 수 월,금(루게릭)▲,목 화, 수, 목▲ 수▲,금,토(2주) 해 외 화,토(1주) 월▲,금▲,토(4,5주) 화, 토(2주) 수, 토(1,3주)	월, 수 월(루게릭)▲,목 목(파킨슨)▲ 화, 수▲ 월, 목, 금 월▲, 수 금 목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연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말초신경, 두통, 치매, 안면마비, 일반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김석현 노성원 민아란 백아영	수, 토(4주) 화, 금, 토(2주) 월, 목, 토(1,3주) 수, 토(5주) 목	월, 수, 목 화, 금 월, 목 월, 목 화, 수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인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일반정신과질환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고주연 김정은 김은진	월,목,토(3주) 해 외 월,수,토(1,2,5주) 화,금,토(4주)	월, 목 화, 금 화, 수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연 수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일반 피부질환
외과 2290-8444	권성준 권오정 이경근 최도호 이강홍 정민성 하태경 안병규 김성후	수, 금 월 화,금,토(1주) 수, 목 화, 목, 토(2주) 목 월, 화, 토(4주) 월, 토(3,5주) 금	수 목 월 화 월,목(문도음) 목 수, 금	위, 십이지장질환 이식, 혈관질환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복강경/로봇위암수술, 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지방종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정원상 김 혁 김혜선	화 화, 목 월, 수, 금	화, 금 화, 목 월, 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일반 흉부(폐, 종격동 및 식도) 질환, 흉강경수술)
정형외과 2290-8473	김태승 이광현 최충혁 성일훈 강창남 이봉근 김이석 황규태 이진규 조영훈	토 월, 수, 금 월, 수 화, 목 월 화, 금 목 화, 목 토 금	월, 목 수 화 월, 수 목, 금 화 화 월, 목 금	사지근골격계종양 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31 - 560 - 2114

■ 응급실 : 031 - 560 - 2050

■ 전화예약 : 1577 - 9382

■ 진료의뢰센터 : 031 - 560 - 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홍 이형중	월, 수 목	금 화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최규선	해 외 금, 토(1,3,4주)	수	연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이건일	금, 토(2,5주)	목, 금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 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윤진호 김연환	월, 수 화, 목, 토(2,4주)	목, 금 화	비만성형, 미용성형, 브찌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윤승기 임수연	토(1, 5주) 토(3, 5주)	금 수	일반성형외과질환
	황정혜	화, 수, 목, 금	월, 화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아기
산부인과 2290-8400	최중섭	월, 수, 토(5주)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2주)	화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엄정민	목, 금, 토(2,4주) 수, 금	화 월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은현	월, 수	금	
안과 2290-8570	엄기방 이병로	월, 수 화, 목, 토(3주)	금 목	녹내장, 백내장
	송인석 임한웅	금, 토(2,4주) 금, 토(4주)	화, 수 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안성준	토(1, 3, 5주)	월, 화	일반 안과질환, 외안부, 각막, 콘택트렌즈, 백내장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김경래	화, 금, 토(3주) 목, 토(2주)	화 월, 목	소아인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 망막증
	태 경	월, 수	수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이면신경마비
	조석현	화, 토(1주)	화, 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송창면 정주환	송창면	월, 목, 토(4,5주) 수, 금	월, 목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주환			부비동염,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빈도질환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월	화, 목	일반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박해영 김용태 박성열	수, 금 화, 목, 토(4주) 수, 목, 토(3주)	월, 수 수, 금 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전립선염, 신장암, 방광염
	이호원 조정기	월, 토(2,4주) 화, 금, 토(1,3,5주)	화, 금 목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전립선염,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소아비뇨기 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김태근	월, 수 · 금(1,2,4주) 화, 목, 토(1,5주)	월, 수 화, 목(1,3주), 금	전립선질환, 신결석, 배뇨장애, 방광염, 일반비뇨기과질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 재활, 척추손상 재활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박혜진	월, 수 월~금	월~금 월, 화	루게릭클리닉(서관 7층 세포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이수진	토(1,3주)	수 월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턱알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화, 목	턱알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행법
	한지영	월~금	화, 목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태건 김주형 심광섭	월, 화, 수 월, 화, 목 화, 금	월, 화, 수, 금 월, 화, 목, 금 수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심미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턱알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용주 김태경	월 수 금	목 금 월, 수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수, 금, 토(2주) 월, 화, 목, 토(4주)	월 화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송재철 이수진	월, 화(2,4주), 목 화(3,5주), 수, 금	월, 화(2,4주), 목 화(3,5주),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 ·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1주)	목, 금	류마티스 ·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토(1주)	월, 화, 목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성윤경 최찬범	월, 화, 수, 금, 토(3주) 월, 수, 금, 토(6주)	수 수, 금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조수경 이성원	월, 수, 목, 금, 토(3주) 월, 목, 토(5주)	월 화, 수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남승완	화, 토(3주)	금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권혁희	수, 토(1,4주)	목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수, 금, 토(3주) 월, 화, 목, 토(2주)	월, 수 화, 목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류마티스 · 골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병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골 · 관절외과 2290-9216	최종혁		월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이봉근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한양대학교국제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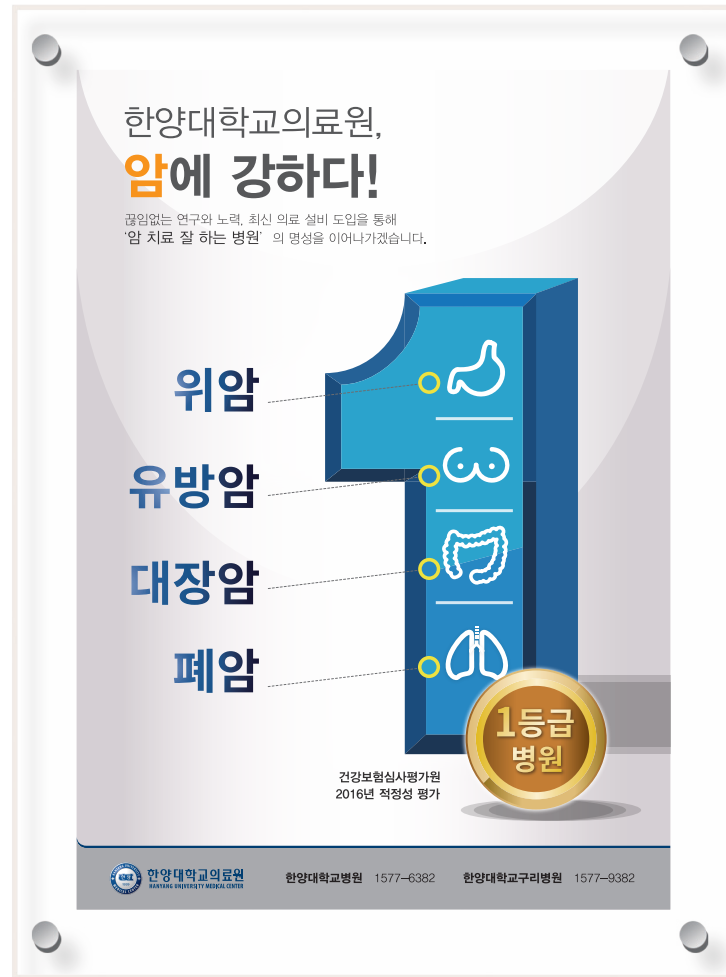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윤호주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정현	화 수 월~금, 토(2,4주) 월, 화, 목, 금	월, 화, 목 화, 수 월, 목 목, 금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정태 김연환	수, 금 화, 목	갑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재활의학과 국제진료	김미정 김태근	월, 수 · 금(1,2,4주) 화, 목, 토(1,5주)	월, 수 화, 목(1,3주), 금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육창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560-2219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소장, 대장질환(염증성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소화기, 위장관질환
	유교상	화, 수, 토(2,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560-2220	박찬혁	수, 목, 토(1,3,5주)	수, 금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정재운	수, 목, 토(2,4주)	화, 금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소화기질환
	김원중		목	소화기질환
	김순길	월, 화, 금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최성일	목	월, 수, 금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장중재술
신장내과 560-2220	박환철	수, 목, 토(1,3주)	화	고혈압, 부장맥질환
	신정훈	월, 토(2,4주)	화,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한상웅	월, 화,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이주학	수, 목, 토(1,2,3주)	월, 목	특발성부종, 전해질이상질환, 만성콩팥병, 고혈압
	이은영	토(4,5주)	금	만성콩팥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내분비대사내과 560-2220	이창범	화, 수, 목, 토(1-4주) 월, 화, 금, 토(6주)	월, 수 월~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홍상모		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부신질환
류마티스내과 560-2220	이혜순	월, 수, 토(3주)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방소영	화, 목, 금, 토(2,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안수민	화, 토(1,5주)	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루푸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560-2220	김태형	월, 수, 목, 토(1,3주) 화, 금, 토(2,4주)	화 월, 목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문지용	화, 금, 토(2,4주)	월, 목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폐암
	박태선	수, 금	수, 금	중환자치료, 호흡부전, 폐렴, 기관지내시경
	최정혜	화, 목, 토(2,4,5주) 월, 수, 금, 토(1,3주)	월, 수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원영웅	월, 수, 금, 토(1,3주)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560-2220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김창렬	화, 수, 금, 토(4주) 화, 목, 토(2주)	화 월, 목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오재원	수, 금, 토(3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문진화	월	월, 수	소아신경질환
	이영호	월	월, 수	소아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 560-2250	김남수	금	금	소아심장질환
	김자혜	수, 토(5주)	수, 목, 금	소아내분비질환, 성장, 의학유전질환
	최영진	월, 목, 토(1주)	화, 목, 금	소아호흡기질환
신경과 560-2260	이영주	화, 금	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목	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수, 목	월,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	월, 목	치매, 뇌졸중, 두통
	임성환	수, 금	금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정신건강 의학과 560-2270	박용천	월, 화, 목, 토(2,4주) 화, 목, 토(1,3주)	월, 목 화, 목, 토(1,3주)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김대호	수	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최준호	월, 수, 금, 토(2,4주)	수	조현병, 조기정신병, 조울증, 우울증, 신경정신학
	김충현	월, 금, 토(2주)	수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김재민	수, 목, 토(4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신경외과 560-2320	정진환	월, 토(1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토(3주)	금	척추질환(척수손상척추수술), 척추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목, 금, 토(5주)	월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이철범	월, 목	월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노선균	화, 수	화, 목	심장질환, 대동맥 및 혈관질환
흉부외과 560-2300	남승혁	금	수, 금	폐질환, 다한증, 흉강경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560-2310	김영호	월, 수, 금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예수	수, 금, 토(5주)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김종현	목, 토(2주)	화, 수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 (인공관절, 관절경수술)
	박기철	화, 목, 토(3주)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토(4주)	화, 금	수부 및 손목질환,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송종훈	화, 토(1주)	월, 목	견관절, 주관절, 외상
산부인과 560-2340	김승룡	수	월	복강경수술, 불임, 부인종양, 일반부인과질환
	이정환	월, 목, 토(2,4주)	목	산모,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자궁근종, 난소종양
	고아라	화, 토(5주)	화, 금	복강경 수술, 부인종양, 부인암 (자궁경부, 난소, 자궁내막)
	정언석	금, 토(1,3주)	수	단일광범 복강경수술(난소, 자궁), 부인암, 산모, 고위험산모
성형외과 560-2330	최승석	월, 수, 금	월, 금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이장현	화, 외	장 기	연 수
	장정우	화, 목, 토	화, 목	안면외상, 욕창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외과 560-2290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흥기	월, 수, 금, 토(1주)	목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병), 이식, 간담체질환
	박원경	목	화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토(3주)	목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김민규	화, 토(5주)	수, 금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최민규	화, 토(2주)	수, 화	유방 및 갑상선질환
	윤정아	목	월	대장항문질환
	김현일	토(4주)	수, 금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안과 560-2350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병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강민호	월, 토(2,4,5주)	화, 금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임한웅	토(1,3주)	화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신용운	월, 금, 토(2,4주)	수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병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피부과 560-2280	유희준	월, 화, 금	화, 목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김정수	수, 목, 토	월, 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강호송	화	수, 금	피부미용, 일반피부과질환
이비인후과 560-2360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종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수	수부외상, 비종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정재호	토	월, 수, 금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유한석	목	월, 화, 목	이명, 어지럼증, 일반 및 소아이비인후과질환
	김종민	화, 수, 금	금	바우비동염, 비종격 민족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비뇨기과 560-2370	최홍용	화, 목, 토(4주)	목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3주)	월, 수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주)	화	복강경수술, 비뇨기종양, 남성과학
	김규식	토(2,5주)	화, 금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560-2380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화, 목	화, 목, 금	소아재활클리닉, 근골격계재활(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손상, 뇌신경 재활
	조형필	월, 수	목	만성통증 및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재활, 척추손상재활, 스포츠의학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치과 560-2660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2,4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김윤영	화, 금, 토(1,3,5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560-2095	심재향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560-2730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한양대학교의료원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1등급
올해에도 '1등급' 명성을 이어갑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올해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16년 적정성 평가에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 분야 1등급을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그 실력을 입증받았습니다. 특히 대장암에서는 4년 연속, 유방암에서는 3년 연속으로 1등급을 받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최신 의료 기기 도입을 통해 '암 치료 잘 하는 병원'의 명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